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상상나래
해외연수 보고서

2023년 1기
나래돌봄 / Oh!벤저스



남양주시복지재단

[1조] 나래돌봄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선진 돌봄체계 연구

I. 서론	1
1. 연수개요	1
2. 연수목적 및 목표	2
3. 연수일정	3
4. 연수국가 특성	6
5. 연수지역 특성	7
II. 선행연구	11
1. 연수국가 선정사유	11
2. 연수주제 분석 '초고령화'	12
3. 연수주제 분석 '빈곤'	14
4. 연수주제 분석 '돌봄'	15
III. 기관방문	19
1. 독일 기관방문 구성	19
2. 노인의날 컨퍼런스	19
3. 노인의날 홍보부스	24
4. 디아코니 요양원	27
5. 카리타스 노인사무소	32
6. Social Welfare Office	37
7. 베를린 연방정부	42
8. Malteser Hilfsdienst	46
9. 스마트홈	49
IV. 결론 및 제언	57
1. 한국 사회복지 적용방안	57
2. 연수 후 활용방안	59
3. 연수 후 기대효과	60
V. 연수소감	63
참고문헌	79
Thanks to.	80

[2조] Oh! 벤저스

지체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정책과 선진 사례 연구

I. 서론	85
1. 연수개요	85
2. 연수목적 및 목표	86
3. 연수일정	86
4. 연수국가 특성	88
5. 연수지역 특성	89
II. 선행연구	93
1. 장애의 정의와 이념	93
2. 한국의 장애인 현황 및 이동권	94
3.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95
4.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현황	96
5. 장애인의 이동성과 사회참여와의 연관성	97
6. 통합교육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	98
III. 기관방문	103
1. 마르부르크시 사회복지청	103
2. 레벤스힐페 뮌헨 장애인시설	111
3. 페니히파라데 장애인작업장	114
4. 뮌헨시청 장애인자문위원회	119
IV. 결론 및 제언	127
1. 한국 사회복지 적용방안	127
2. 연수 후 활용방안	129
3. 연수 후 기대효과	130
V. 연수소감	133
참고문헌	143
Thanks to.	144

사회복지중사자 해외연수 상상나라

2023년 1기 '나래돌봄'

1 서론

1. 연수개요
2. 연수목적 및 목표
3. 연수일정
4. 연수국가 특성
5. 연수지역 특성

01 서론

1 연수개요

- 연수주제 :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선진 돌봄체계 연구
- 연수기간 : 2023. 10. 20.(금) ~ 10. 30.(월) / 9박 10일
- 연수장소 : 독일(라이프치히, 베를린)
- 연수대상
 - 팀명칭 : 나래돌봄
 - 의 미 : ‘여러 나라를 돌아보다 + 나를 돌보다’를 합친 말로, 해외연수를 통해 나라를 돌아보며 노인돌봄에 대해 살펴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함께 갖고자 하는 의미

소 속	직 급	성 명
남양주시사회복지관 동부희망케어센터	팀장	김영혜
남양주시사회복지관 서부희망케어센터	대리	조명선
남양주시사회복지관 남부희망케어센터	팀장	박세규
바비두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이미현
남양주해피트리요양원	대표	장공자
남양주시복지재단	주임	구자민

- 연수내용
 - 노인의날 행사참여를 통해 독일 노인복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
 - 라이프치히 노인 관련 기관방문을 통한 시 단위 사회복지 시스템 이해
 - 베를린 가족돌봄 프로젝트 세미나 및 견학을 통한 연방정부 단위 시스템 이해
- 방문기관
 - [1일차] 노인의날 컨퍼런스 참여(기조강연, 홍보부스)
 - [2일차] 라이프치히(디아코니, 카리타스, 라이프치히 시청 사회복지국)
 - [3일차] 베를린(연방정부 세미나, Malteser Hilfsdienst, 스마트홈)

2 연수목적 및 목표

가 연수목적

- 독일의 시청 등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낮은 노인빈곤율의 원인과 초고령 사회를 대처하는 정책 및 방안을 살펴보고 남양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고자 함.
- 독일의 민·관에서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돌봄체계와 서비스 제공방법을 살펴보고, 남양주시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접목하여 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독일 내 지역 커뮤니티 케어로 이루어진 노인돌봄 사례 체험 및 실제 노인돌봄 서비스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남양주시 통합돌봄 서비스 등 노인돌봄 서비스에 접목하고자 함.

나 연수목표

- 국내외 노인돌봄 분야에 대한 동향 파악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남양주시 맞춤형 돌봄 서비스 방안 구축
- 해외연수 준비과정 및 실제 선진지 연수를 통해 참가자의 사회복지 전문성 신장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
- 주요 복지 선진국가 탐방을 통해 선진 사회복지 문화를 습득하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돌봄 분야의 선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남양주시 복지인력의 핵심역량 강화
- 주요 복지 선진국가 탐방을 통해 선진 사회복지 문화를 습득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돌봄 분야의 선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남양주시 복지인력의 핵심역량 강화
- 연수 후 보고서 작성, 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남양주시 내 노인돌봄 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 정보전달 및 공유

3 연수일정

가 세부 연수일정

일 정	지 역	시 간	주 요 일 정
10/20(금) [1일차]	인천	07:30	▪ 인천국제공항 집결
		10:00	▪ 인천 → 프랑크푸르트(13시간 45분 소요)
	프랑크푸르트	17:00	▪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16:45) 및 숙소이동
10/21(토) [2일차]	프랑크푸르트	09:00~18:00	▪ 현지 문화탐방 및 팀 네트워킹
10/22(일) [3일차]	슈투트가르트	09:00~18:00	▪ 현지 문화탐방 및 팀 네트워킹
10/23(월) [4일차]	드레스덴	09:00~18:00	▪ 현지 문화탐방 및 팀 네트워킹
10/24(화) [5일차]	라이프치히	10:30	▪ 프랑크푸르트 → 라이프치히 이동(기차)
		12:00	▪ 현지문화탐방 및 팀 네트워킹
		20:00	▪ 팀 모임(익일 일정 점검)
10/25(수) [6일차]	라이프치히	09:30~15:00	▪ 노인의날 행사 참여(기조강연)
		15:00~16:00	▪ 노인의날 행사 참여(부스체험)
		16:00~17:00	▪ Townhall tower(라이프치히 소개)
		20:00~	▪ 숙소 도착 및 저녁 팀 모임

일정	지역	시간	주요 일정
10/26(목) [7일차]	라이프치히	09:00~10:30	▪ 라이프치히 디아코니 방문 (요양원과 유치원 통합시설)
		11:00~14:00	▪ 라이프치히 카리타스 방문 (노인시니어센터)
		15:00~16:00	▪ 라이프치히 시청 사회복지국 미팅 Sozialamt (Social Welfare Office)
		16:00~17:00	▪ 라이프치히 시청(Technical Townhall) barrierfreeies Wohnen
	베를린	17:00~20:00	▪ 라이프치히 → 베를린 이동(기차)
		21:00~	▪ 숙소 도착 및 저녁 팀 모임
10/27(금) [8일차]	베를린	09:00~12:00	▪ 베를린 시청 방문 (연방정부 상원의원실)
		13:00~15:00	▪ 독일 가족간병인 협회 “Wir pflegen e.V.” Malteser Hilfsdienst
		15:00~17:00	▪ 베를린 스마트홈 견학
		20:00	▪ 팀 모임(방문일정 피드백 및 익일 일정 점검)
10/28(토) [9일차]	베를린	09:00~18:00	▪ 현지문화탐방 및 팀 네트워킹 ▪ 해외연수 종합점검 및 리뷰
10/29(일) [10일차]	프랑크푸르트	14:30	▪ 프랑크푸르트 공항 집결
		17:00	▪ 프랑크푸르트 → 인천 (11시간 소요)
10/30(월) [11일차]	인천	12:00	▪ 인천공항 도착 및 해산

나 기관방문 세부일정 요약

일 시	방문기관	세부내용
10.25.(수) [라이프치히]		(노인의날 행사 - 기초강연) - 일 시 : 09:30 ~ 15:00 - 장 소 : 라이프치히 신시청 강당 - 대 상 : 라이프치히 지역 시민 - 내 용 : 컨퍼런스 안내, 기초강연 등
		(노인의날 행사 - 부스참여) - 일 시 : 15:00 ~ 16:00 - 장 소 : 라이프치히 신시청 연회장 - 대 상 : 라이프치히 지역 시민 - 내 용 : 노인 관련 홍보부스 견학
10.26.(목) [라이프치히]		(라이프치히 디아코니) - 일 시 : 09:00 ~ 10:30 - 장 소 : 35, 35039 Marburg - 담 당 : Marburg 센터장 1명 - 내 용 : 요양원유치원 통합시설 견학 및 인터뷰
		(라이프치히 카리타스) - 일 시 : 11:00 ~ 14:00 - 장 소 : Ruth-Pfau-Str. 204107 - 담 당 : 카리타스 직원 2명 노인사무소 1명 직원 노인 자조모임 대표 1명 - 내 용 : 담당 직원 인터뷰 및 센터 소개
		(라이프치히 시청) - 일 시 : 15:00 ~ 16:00 - 장 소 : Technical Townhall 3층 - 담 당 : 사회복지공무원 1명 사회복지국 직원 5명 - 내 용 : 주요 업무소개 및 인터뷰
		(라이프치히 barrierfreeies Wohnen) - 일 시 : 16:00 ~ 17:00 - 장 소 : Technical Townhall 1층 - 담 당 : barrierfreeies 담당자 1명 - 내 용 : 노인 지원물품 소개 및 안내

10.27.(금) [베를린]		(베를린 시청 연방정부 상원의원실 세미나) - 일 시 : 09:00 ~ 12:00 - 장 소 : 상원의원 세미나실 - 담 당 : 연방정부 팀장 및 박사 각 1명 - 내 용 : 연방정부 보건 및 요양 소개
		(독일 가족간병인 협회 "Wir pflegen e.V.") - 일 시 : 13:00 ~ 15:00 - 장 소 : Wir pflegen e.V 사무실 - 담 당 : 방문 상담서비스 담당자 2명 - 내 용 : 서비스 사례 소개 및 인터뷰
		(스마트홈) - 일 시 : 15:00 ~ 17:00 - 장 소 : Ernst-Reuter-Platz 7 - 담 당 : 디지털 요양 담당자 1명 - 내 용 : 디지털 시스템 연구 및 전시장 소개

4 연수국가 특성

가 연수국가

연수지역 소개	위치(사진)
<div style="background-color: #fff9c4;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독일(Germany)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 베를린 (Berlin) ○ 면적 : 357,592km² (2021. 12. 31. 기준) ○ 인구 : 83,695,430명 (2022. 3. 31. 기준) ○ 인종 : 게르만족 독일인 80%, 기타 외국인 20% ○ 언어 : 독일어 ○ 종교 : 가톨릭(28%), 개신교(25%), 이슬람교(5%), 또는 기타(42%) ○ 출처 : GIHIP(국제의료정보포털) 	 <p style="margin-top: 10px;">〈독일 주요도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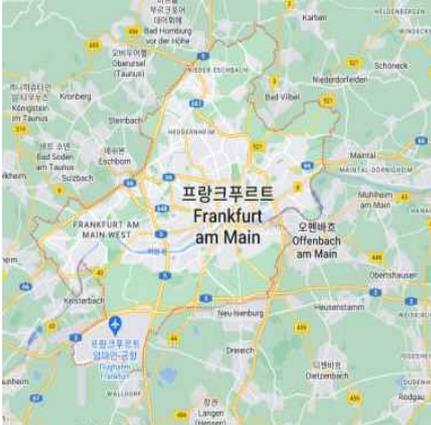
나 연수국가 보건 의료 통계

구분	독일	한국
인구	8320만 명	5174만 명
65세 이상 인구비율	21.7%	18.4%
기대수명	81.4년	82.7세
영아사망률	3.2명	1.3명
임상 의사	4.39명(인구 천 명당)	2.6명(인구 천 명당)
병원 병상	7.91개(인구 천명당)	12.8개(인구 천 명당)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12.8%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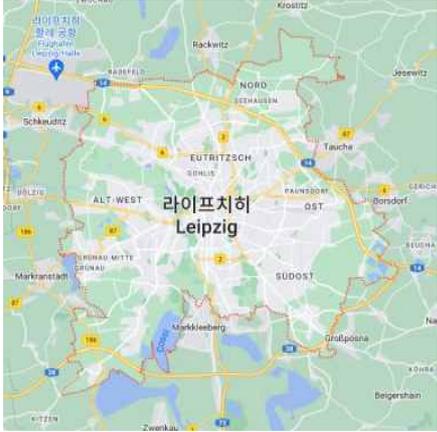
※ 출처 : GHIP(국제의료정보포털), OECD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5 연수지역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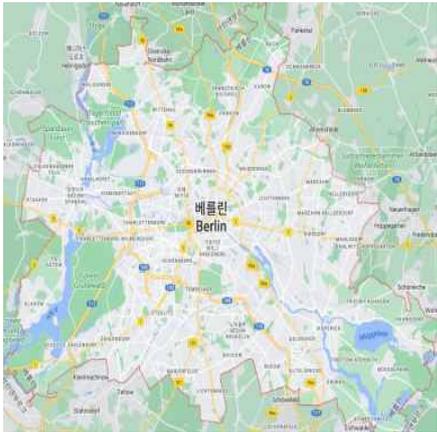
가 프랑크푸르트

도시	지도
 <p>프랑크푸르트암마인 (Frankfurt am Ma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 : 헤센주 ○ 면 적 : 248.31km² ○ 인 구 : 753,056명(독일도시 내 인구수 5위) ○ 기 후 : 평균기온 14.6° C ※ 10월 기준 ○ 도시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경제수도라할만큼 독일 경제 중심지 · 유럽 중앙은행, 증권거래소 등 금융 중심지 · 세계 2위 규모 공항을 보유, 교통의 중심지 	

나 라이프치히

도시	지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라이프치히 (Leipzig)</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 : 작센주 ○ 면 적 : 297.36 km² ○ 인 구 : 587,857명(독일도시 내 인구수 10위) ○ 기 후 : 평균기온 14.0° C ※ 10월 기준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작센주 최대의 도시, 10대 도시 중 하나 · 교향악단과 오페라 등이 유명한 음악의 도시 · 문화와 학문, 박물관을 즐길 수 있는 도시 	
<p><방문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프치히 시청 방문 및 “노인의날 2023” 컨퍼런스 프로그램 참여 - 라이프치히 디아코니 요양원·유치원 통합시설 내부 견학 - 라이프치히 카리타스 노인사무소의 담당 직원 및 위원 인터뷰 - 라이프치히 사회복지사무국 방문 및 barrierfreeies Wohnen 소개 및 견학 	

다 베를린

도시	지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베를린 (Land Berlin)</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 : 독일연방공화국 ○ 면 적 : 891.68km² ○ 인 구 : 3,644,826명(독일도시 내 인구수 1위) ○ 기 후 : 평균기온 13.9° C ※ 10월 기준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수도이자 유럽연합 최대의 도시 · 도시 면적의 1/3이 숲, 공원, 정원 등 구성 · 세계유산, 베를린 장벽 등 독일의 랜드마크 	
<p><방문기관> 10.27.(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를린 주 시청 장기요양 부서 방문 ※ 부서장 Anja Ludwig 박사 인터뷰 - Wir pflegen e.V. Malteser Hilfsdienst 기관방문 ※ 사업담당자 인터뷰 - 스마트홈 기관방문 및 시스템 견학 ※ 기관소개 및 디지털 요양 시스템 견학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상상나라
2023년 1기 '나래돌봄'



선행연구

1. 연수국가 선정사유
2. 연수주제 분석 - '초고령화'
3. 연수주제 분석 - '빈곤'
4. 연수주제 분석 - '돌봄'

02

선행연구

1

연수국가 선정사유

가 배경적 측면

- 독일은 세계 GDP 순위 3위로 경제 대국 해외 선진지 국가임.
- 독일 사회복지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복지와 관련된 보건 의료 지표를 보았을 때 모두 OECD 평균 이상으로 나타남.
- 특히, 노인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노인복지서비스 수준이 매우 높음.
- 또한, 독일은 유럽국가 중에서도 외국인 비율이 낮은 편으로 단일 인종으로 구성된 한국과 유사한 인종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유럽국가보다 폐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 외국과 국가 간 교류가 적은 한국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나라임.

나 제도적 측면

-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및 민영보험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어 선진사례를 학습할 수 있음.
-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남양주시 선도사업으로 진행된 통합돌봄 사업 중 노인돌봄 부분의 경우 독일의 지역 내 커뮤니티를 활용한 사회참여, 노인주택, 자원봉사 등 새로운 사례를 접목할 수 있음.
- 이에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정책적, 민간 복지시설 사례 학습을 통해 실무적 함의를 얻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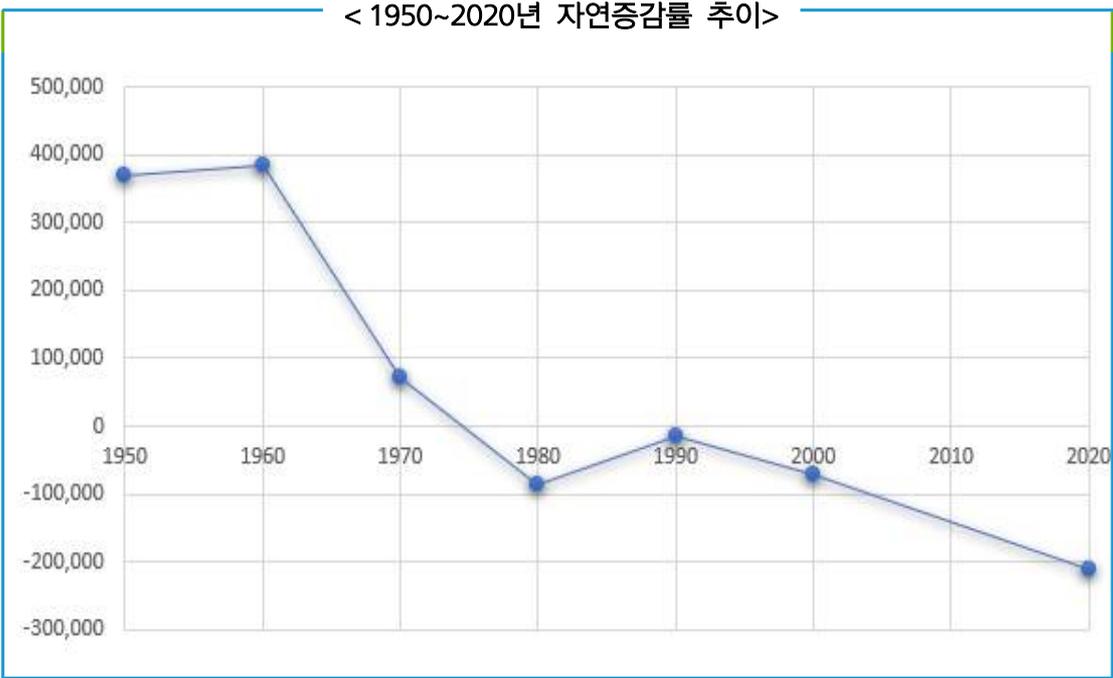
다 주제 관련성

- 독일은 1932년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7%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 2009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대처하고 있는 복지 선진지 국가임.
- 또한, 고령화를 경험하는 한국에는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나, 2020년 기준 독일의 노인빈곤율은 9.6%로 한국의 43.8%와 비교하였을 때 약 4.5배 이상 차이로 나타나 유사한 환경 내 사회문제를 극복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함.

2 연구주제 분석 - '초고령화'

가 독일의 초고령화

- 독일 연방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에서 2003년 6월에 발표한 '2050년까지의 독일 인구' (Bevoelkerung Deutschlands bis zum Jahr 2050) 에 의하면 2050 년도에는 절반의 인구가 48세 이상이 되고 전체인구의 1/3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 1970년(서독) 20대 미만은 전체인구의 29.7%를 차지했으나, 2018년(독일)에는 18.4%로 감소하는 등 젊은층 비율 지속 감소하고 있다.
- 반면 67세 이상 인구비율은 1970년에서 11.1%에서 2018년 19.2%로 증가했고,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1970년 0.6%에서 2018년 2.7%로 증가했다(2018년 말 기준 230만 명)
※ 독일인구 전체 평균연령 : 44.5세(2019년 말 기준)
- 연방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고령화 추세는 지속 예상
 - 67세 이상 : '18년 19.2% → '60년 27.4%로 급격 증가
 - 20세 미만 : '18년 18.4% → '60년 18.0%로 큰 차이 없음
 - 20대~ 67세 미만 : '18년 62.5% → '60년 54.6%로 감소
- 연방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고령화 추세는 지속 예상



- 자연증감률 : (출생아 수 - 사망자 수)의 값으로 인구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 일시적으로 올랐으나 그 이후부터는 계속 하락하는 마이너스 자연증감률을 보이고 있음
- 출처 : "Startseite - 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

나 독일의 초고령화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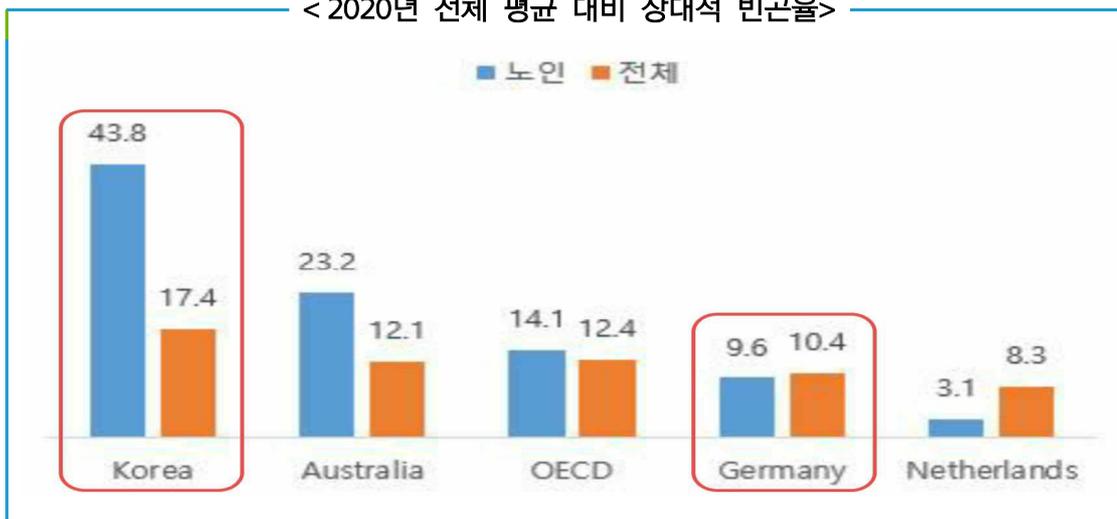
- (정년연장) 독일 정년은 '11년까지는 만 65세였으나, '12년부터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29년까지 만 67세로 연장
 - 최근 심각한 노동력 부족 심화로 추가로 정년 연장하자는 제안도 제기
 - ※ '21.4.7일 독일경제연구소(IW)는 정년을 67세→ 69세로 상향 조정 제안
 - 취업자 비율
 - 60~64세 취업자 비율 : 2009년 39% → 2019년 62%
 - 65세 이후 취업자 비율 : 2009년 8% → 2019년 18%
- (여성경제활동) 1999년 여성 경제활동비율은 43.6%에서 '19년에는 46.6%로 증가했으며, 특히 55세~64세 여성의 경우 1999년 38%에 불과했으나 '19년 47.5%로 약 10%p 증가
- (이민확대) 일정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다 많은 전문인력의 독일 이주가 가능토록 전문인력이주법* 시행('20.3월)
- (자동화, 디지털화) 제품의 생산 등에 있어 자동화, 디지털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Industrie 4.0" 플랫폼 발표(2015년)

다 독일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시사점

- 독일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 노동력 문제의 해결이다. 독일은 출산률 하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독일은 고령화에도 가계 및 기업의 투자 여력이 높게 유지됐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 생산력의 향상이다. 독일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R&D, 인력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투자 환경 등 제도도 개선
 - 정부지출의 감축을 위한 노력이다. 독일 정부는 고용과 연금 개혁을 통해 과도한 복지 지출을 축소시키는 한편, 고령자의 연금 수급 시기를 분산하여 복지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 한국의 시사점
 - 2013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2.3%이고, 2017년에는 14%가 되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 독일의 사례를 접목하여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 노동력의 양적 확보와 질적 수준의 제고
 - 자본의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및 디지털화
 -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한 복지 체계개선 → 노인돌봄 대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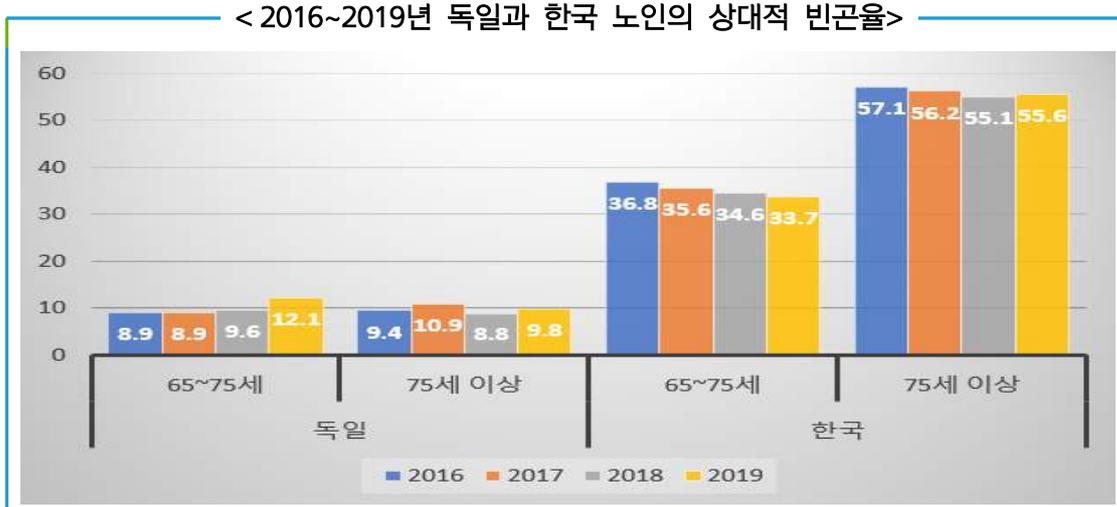
3 연구주제 분석 - '빈곤'

□ 독일과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 한국 : 전체 기준 17.4% 낮으나, 노인은 43.8% 매우 높음 빈곤율 보임
- 독일 : 전체 기준 10.4%, 노인은 9.6% 오히려 노인이 더 낮은 빈곤율 보임
- OECD 전체 평균 대비
 - 독일은 전체 및 노인 모두 전체보다 낮으며, 오히려 노인빈곤율이 더 낮음
 - 한국은 전체 및 노인 모두 전체보다 높으며, 노인빈곤율은 30% 이상 차이를 보임

□ 독일과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연령별 추이



- 최근 독일의 빈곤율이 조금 높아졌으나 10% 내외 수준으로 확인
- 최근 한국의 빈곤율이 조금 낮아졌으나, 30~50% 수준으로 매우 높음을 확인
- 특히 한국은 7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이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연구주제 분석 - '돌봄' ※ '독일 돌봄 인력의 현황과 정책 동향(2019. 박수지)' 인용

가 독일 돌봄인력 정책 동향

- 독일의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독일 사회가 요구하는 돌봄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욕구와 요구에 부응하는 충분한 전문인력 상황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독일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 **독일의 정책적 대응**
 - 2017년 연방 의회에서 '돌봄에 관한 긴급 대책(Sofortprogramm Pflege)'으로 노인 돌봄 일자리 창출 사업과 돌봄 인력의 처우 및 근무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들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직종별로 분절되어 발전한 돌봄 인력 양성 및 관리 시스템을 2020년까지 현대화하기 위해 「돌봄 인력 양성에 관한 법(Pflegeberufegesetz)」을 제정하였다.

나 독일 돌봄인력 현황

- 2018년 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이 발표한 돌봄 노동시장 보고서(Arbeitsmarktsituation im Pflegebereich)에 의하면 **독일의 돌봄 인력**은 크게 노인돌봄인력(Altenpflegekräfte)과 의료·간병인력(Krankenpflegekräfte)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7년 기준 **총 170만 명** 중 노인 돌봄 인력은 약 60만 명, 의료·간병 인력은 약 110만 명이었다.

<정규직 돌봄인력>

그림 1. 정규직 돌봄 인력의 특성(2017년 6월 기준)*



자료: Bundesagentur für Arbeit. (2018a). Blickpunkt Arbeitsmarkt: Arbeitsmarktsituation im Pflegebereich. p. 7.

□ 독일의 돌봄인력의 구조

- 전문인력 : 2년 이상의 고등교육과정과 해당 학과의 졸업 시험을 통과한 자
- 전문가 : 고등교육기관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이수한 자
- 전문돌봄인력 : 전문인력과 전문가를 합쳐서 전문돌봄 인력으로 칭함

□ 독일의 심각한 전문돌봄 인력 부족 현황



- 위의 지도는 독일 연방 노동청에 지역별로 보고된 전문돌봄 인력 구인 등록자 수, 구직 등록자 수, 등록된 구인자가 인력을 찾기까지의 기간을 분석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수준을 표시한 결과이다.
- 왼쪽 지도는 노인 돌봄 영역의 전문인력과 전문가가 부족한 정도를 보여준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이미 전문돌봄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다. 회색은 전문인력의 구인, 구직에서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역을 의미한다.
- 독일 전역에서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돌봄인력 전체를 볼 때 구인 등록자의 67%가 100일 이상의 기간이 걸려 전문인력을 찾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 독일 노인돌봄 인력부족 정책적 대안

- 연방정부가 요양시설의 돌봄 인력 확충과 임금 인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 ※ 실제 기관방문 당시(23년 10월) 시위를 통해 4% 정도 임금상승이 진행되었다.
- 돌봄 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
 - 돌봄 영역의 불필요한 행정 서류와 절차를 폐지하는 'EINSTEP' 프로젝트 등
- 돌봄 인력 교육 및 양성에 적극적인 개입
 - 돌봄인력 양성하는 직업 교육 학생 수 10%(5,000명) 증가 예정
 - 전문돌봄 인력의 범위 확대를 위한 직종 개혁 법률 제정 등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상상나라

2023년 1기 '나래돌봄'



기관방문

1. 독일 기관방문 구성

[1일차 - 라이프치히]

2. 노인의날 컨퍼런스
3. 노인의날 홍보부스

[2일차 - 라이프치히]

- 4-1. 디아코니 요양원
- 4-2. 디아코니 인터뷰
- 5-1. 카리타스 노인사무소
- 5-2. 카리타스 인 터 뷰
- 6-1. Social Welfare Office 방 문
- 6-2. Social Welfare Office 인터뷰
- 6-3. barrierfreeies Wohnen

[3일차 - 베를린]

- 7-1. 베를린 연방정부 세미나
- 7-2. 베를린 연방정부 인터뷰
- 8-1. Malteser Hilfsdienst 방 문
- 8-2. Malteser Hilfsdienst 인터뷰
- 9-1. 스마트홈 소개
- 9-2. 스마트홈 견학

03 기관방문

1 독일 기관방문 구성

1일차 독일의 이해

- 노인의날 행사 참여
 - 기초강연 청강
 - 홍보부스 견학
- 독일 노인복지의 이해
- 독일 노인의 현황 파악
- 노인복지 특화사업 파악

2일차 라이프치히

- 시 차원의 노인복지 이해
 - 특화사업 운영기관 방문
 - 사회복지국 직원 인터뷰
- 라이프치히 대표시설 방문
 - 디아코니 요양원
 - 카리타스 노인사무소

3일차 베를린 연방정부

- 연방정부 차원의 노인복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
- 보건·요양 담당자 세미나
- 프로젝트 운영기관 방문
 - 방문 상담서비스
 - 디지털요양(스마트홈)

주제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선진 돌봄체계 연구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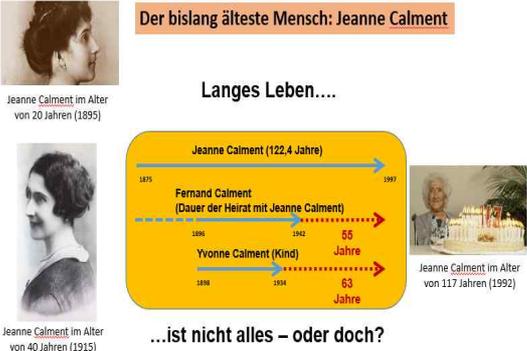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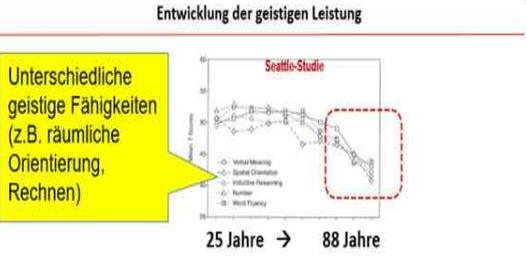
- 독일 노인의날 맞춰 해외연수를 기획 → 행사 참여를 통한 독일 노인복지 이해
- 시 차원 운영 프로젝트 → 요양원, 노인사무소, barrierfreeies Wohnen
- 연방정부 차원 운영 프로젝트 → 방문 상담서비스, 디지털 요양의 이해

2 [1일차] '라이프치히' 노인의날 컨퍼런스

가 행사개요

- 주 제 : 노년기 발달 '과소평가된 이익과 과대평가된 손실'
(부제) 나이드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인가?
- 일 시 : 2023. 10. 25.(수) 09:30~15:00
- 장 소 : 라이프치히 신시청 강당(Martin-Luther-Ring 4, 04109 Leipzig)
- 대 상 : 라이프치히 지역 시민(노인, 노인 요양하는 가족, 자원봉사자 등)
- 내 용 : 컨퍼런스 안내, 기초강연, 노인대표 담당자 질의응답 등
- 발 표 : Prof. Dr. Hans-Werner Wahl | Seniorprofessor
Netzwerk AlternsfoRschung, Universität Heidelberg

나 주요발표 내용

구분	세부내용
<p>Der bislang älteste Mensch: Jeanne Calment</p>  <p>Langes Leben...</p> <p>...ist nicht alles – oder doch?</p> <p><small>https://fr.wikipedia.org/wiki/Jeanne_Calment</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4년을 살았던 여성을 소개 - 자녀와 남편이 죽고도 63년을 더 살음 - 혼자 지내는 세월이 길었음 ○ 오래 산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지내는 외로움과 이별의 괴로움
<p>Gesunde Lebenserwartung steigt: Aber nicht für alle gleichermaßen</p>  <p>Botschaft: Die gesunde Lebenserwartung steigt historisch weiter an, aber leider nach „Schicht“ deutlich verschiede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기대수명 증가 그래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 - 왼쪽 : 건강한 사람의 기대수명 - 오른쪽 : 평균 기대수명 - 건강한 사람의 기대수명이 더 높음 ○ 기대수명 차이에 대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중요) / 교육 / 인종 등
<p>Alltagskompetenzen bei über 80-Jährigen in Deutschland (D 80+)</p>  <p>Botschaft: Alltagskompetenzen sind selbst im hohen Alter durchaus relativ hoch; größte Hilfebedarfe in Bereichen mit Bewegungseinschränkunge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에 따른 도움이 필요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빨간색 동그라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또는 많은 도움이 필요 - 파란색 동그라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이 필요없고 독립적 생활 가능 ○ 80세 이상 노인들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
<p>Entwicklung der geistigen Leistung</p>  <p>Botschaft: Hohe geistige Leistungsfähigkeit bis ins 7. Lebensjahrzehnt; danach moderater Abfall. → Lernfähigkeit auch im Alter relativ hoch. Lebenswissen ist bedeuts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세까지 직접적 배움 가능 - 80세부터 인지기능 조금씩 떨어짐 - but, 못배우는건X → 배움O ○ 70세 이상부터 배움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취미를 통한 독립의 만족감 - 나이들에 따른 발달의 가능성

구분	세부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Entwicklung sozialer Beziehungen</p> <p style="text-align: center;">Botschaft: Viel Stabilität bei wichtigen Beziehungen → Einsamkeit kein generelles Problem des Alters, aber auch in diesem Lebensabschnitt ein hochrelevantes Them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왼쪽) 나이와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가 들어도 관계는 일정 - 90세까지 일정한 관계가 유지 ○ (오른쪽) 나이와 외로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이 돼서 외로움을 느끼는게 아님 - 외로운 사람은 노인 되기전부터 시작 - 나이와 외로움은 큰 관계가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Einstellungen zum eigenen Älterwerden im Altersgang</p> <p style="text-align: center;">Botschaft: Je älter wir werden, desto negativer bewerten wir unser eigenes Älterwerden → Seien wir hochsensibel für negative Alterszuschreibunge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듦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세 :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 - 73세 : 부정적이고 힘든 상황으로 인식 ○ 과거의 노인과 현재 노인의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드는 것은 부정적으로 인식X - 새로운 인생의 단계, 또 다른 시작
<p style="text-align: center;">Drittes, Viertes und Fünftes Alter</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Das „Dritte“ Alter (ca. 60-80 Jahre alt) ist u.a. gekennzeichnet dur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he Verhaltenskompetenz ■ Geringe Morbidität ■ Wenig Verlusterfahrungen (außer Rollenverlust) ■ Gute Kompensationsmöglichkeiten </div> <div style="width: 45%; text-align: right;"> <p>Historisch neue Lebensphase (Laslett)</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width: 45%;"> <p>Das „Vierte“ Alter (ca. ab 80 Jahren) ist u.a. gekennzeichnet dur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nktionseinbußen, erhöhtes Risiko der Hilfsbedürftigkeit ■ Erhöhtes Risiko der Multimorbidität ■ Häufung von Verlusterfahrungen ■ Geringere Anpassungsfähigkeit </div> <div style="width: 45%; text-align: right;"> <p>Das große Dilemma des Mängelwesens Mensch (Baltes)</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기의 단계적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 60~80세(긍정적) - 4단계 : 80세 이후(부정적) ○ 단계에 따른 생애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는 인생의 새로운 단계(선호) - 4단계는 돌봄이 필요한 단계(부정)
<p style="text-align: center;">Es gibt nichts Gutes, außer man tut es: Sehr praktisch.</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0%; background-color: #FFD700;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Psych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mgang mit Lebenszielen – Zielanpassung ist hilfreich. • Macht des "Akzeptierens" – Altern als "Entdeckung der Langsamkeit" und von "Zeit haben". • Kunst der Kompensation – Dinge anders machen, aber sie weiter tun. • In emotional bedeutsame soziale Beziehungen investieren. </div> <div style="width: 30%; background-color: #FFFF00;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Körp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örperliche Aktivität ist vielseitig hilfreich (z.B. Fitness, Sturzprävention, kognitive Leistung, neuronale Plastizität, Wohlbefinden, Demenzvorsorge). </div> <div style="width: 30%; background-color: #90EE90;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Gei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fenheit für neue Erfahrungen. • Engagement generell. </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background-color: #D3D3D3;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Gero-Transzendenz:</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igenes Leben als Teil eines größeren Ganzen begreifen – Spiritualität und Religiosität. • Generativität: Sorge für nachfolgende Generationen.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기 성공한 노인이 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신체적 활동 - 새로운 경험 -> 인지능력 상승 ○ 노년기 대비를 위한 목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50세 이루고 싶은 목표 선정 - 긴 노년기에 따른 인생 목표의 중요성

라 사진자료



라이프치히 노인의날 컨퍼런스



강의내용 질의응답



단체사진①



단체사진②



노인 대변인 제도 소개 및 참가자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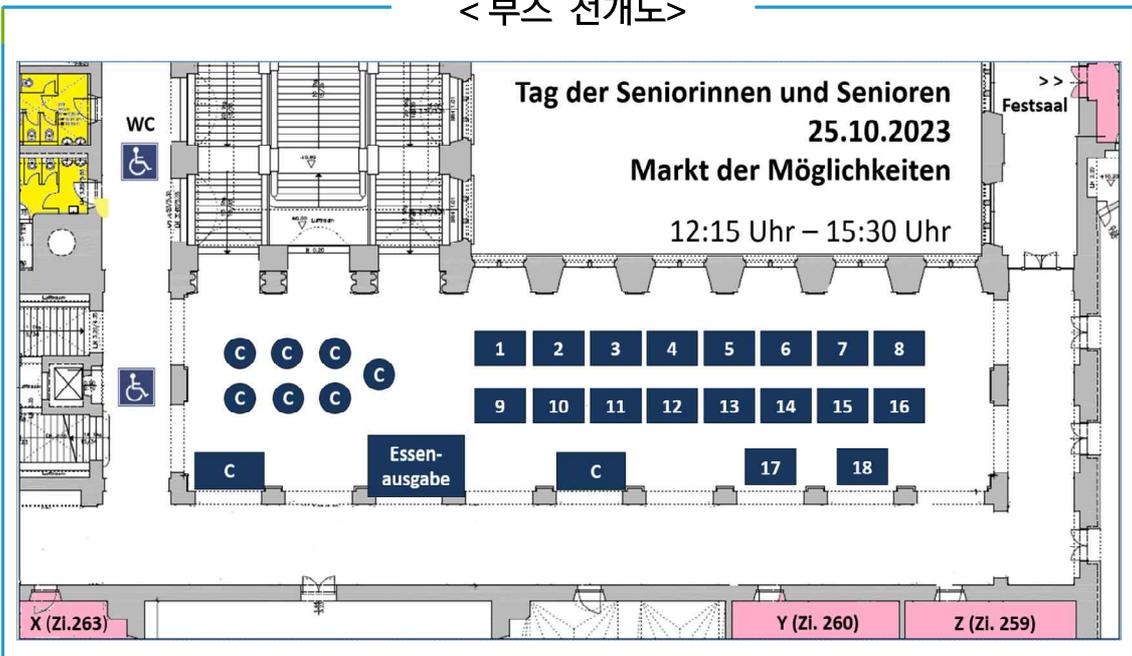
왼쪽부터 사회자, 라이프치히 시장, 작센주 노인 대변인

3 [1일차] '라이프치히' 노인일일 홍보부스

가 행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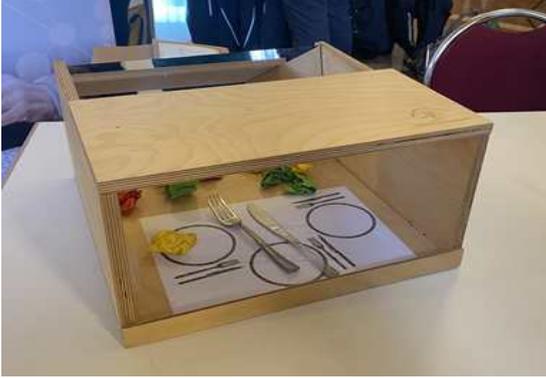
- 일 시 : 2023. 10. 25.(수) 12:15~15:30
- 장 소 : 라이프치히 신시청 연회장(Martin-Luther-Ring 4, 04109 Leipzig)
- 대 상 : 라이프치히 지역 시민(노인, 노인 요양하는 가족, 자원봉사자 등)
- 내 용 : 노인 관련 10개 항목으로 구분된 홍보부스 운영
 ※ 홍보부스 운영하는 주체는 모두 자원봉사자로 구성
- 주 최 : 라이프치히 사회복지사무국

< 부스 전개도 >



구분	부스번호	구분	부스번호
여가/조건	1~6	교육/문화	12
간호/치매	7~8	옹호/소비자 보호	13
주의사항/예방	9	다양성	14
경제적 지원	10	건강	15
약혼	11	주거/이동	16~18

나 부스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구) 홍보부스 소개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자는 모두 자원봉사자로 구성 - 행사 안내와 함께 상담도 진행 ○ (기념품) 긴급 의약품 통(초록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먹는 상비약을 넣어 집에 보관 - 자신이 쓰러졌을 때 외부에서 방문 시 해당 약을 통해 질환 및 질병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번) 라이프치히 치매 자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내 치매노인 케어를 위한 상담 - 지역 내 요양 서비스 연계 역할 ○ 치매노인을 이해하는 체험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울을 보고 반대로 된 사물을 옮기기 - 치매가 아닌 사람이 치매를 이해하기 - 치매노인을 공감하기 위한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번) 방문서비스 및 요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프치히 요양시설 안내 및 소개 - 지역에 있는 모든 시설을 볼 수 있음 - 방문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상담 ○ 구체적인 시설입소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환경, 상태를 고려한 입소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번) 경제적 지원 서비스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노인에 대한 상담 서비스 - 가능한 경제적 지원 서비스 발굴 ○ 주요 서비스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기본보장, 주택수당, 중증장애 - 수급 및 경제적 지원 가능 여부 판단

구분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번) 라이프치히 봉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과정 설명 - 지역 내 자원봉사 연계 상담 등 ○ 자원봉사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및 이수방법 안내 - 자격증 취득 후 할 수 있는 일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번) 라이프치히 아카데미(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라이프치히 대학 교육 청강 - 단순 청강X → 학점 이수O + 졸업O ○ 교육에 욕구가 있는 노인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신청 및 청강 방법, 이수 내용 - 구체적인 커리큘럼 등 소개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번) 라이프치히 노인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노인들 간의 상담 모임 - 노인들이 필요한 내용 상담 - 필요한 내용에 대한 지속적 공유 ○ 뉴스레터 배포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욕구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제공 - 세부 항목별 상담 및 연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번) 라이프치히 운송회사 LV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프치히 시에서 운영하는 운송회사 - 실제 운송회사 직원 ○ 노인 대중교통 도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동행 서비스 - 운송회사 직원이 출발~도착까지 지원 - 실제 함께 이동하는 대면 서비스

4-1 [2일차] '라이프치히' 디아코니 요양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thahaus 요양원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총체적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며 가능한 최고의 의료 서비스도 보장하는 기관 • 주요 초점은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욕구에 기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본 조건을 잘 갖추고 있음 • 노인/보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노인들 간의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 노인과 어린이의 정서발달에 기여하고 있음 • 라이프치히 내에서도, 요양원 중 인기가 가장 많은 기관 ○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무휴 24시간 진료 가능하며,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담당 의사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전문분야 의사인 신경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의사, 비뇨기과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 치료 초점 및 대상자 그룹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및 케어가 들어가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 치매, 신체적 질병 등 전문적인 완화치료 제공 • 지역주민들의 가정생활 관련 기사를 담은 신문을 월간으로 발행 • 라이프치히 시내에 위치하여 도시의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한 교통 연결로 지역 내 행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 • 요양원과 함께 유치원을 운영하여 어린이 보육 및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주소 : Frauenbergstraße 35, 35039 Marburg ○ 홈페이지 : www.marburg.de
선정사유 (방문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프치히 내 요양원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기관 - 요양원 내 유치원을 통합운영하는 독특한 기관으로, 이런 공동 운영은 독일 내에서도 해당 기관에만 구축하고 있어 독보적인 운영방침을 함께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채택 - 디아코니 대형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요양원 시스템과 함께 독일의 사회복지법인 디아코니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 채택

4-2 [2일차] '라이프치히' 디아코니 인터뷰

가 기관사항

- **요양원 규모와 간단한 시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25개의 1인실과 12개의 더블룸에 49개의 간호 공간, 샤워 시설, 세면대, 화장실이 있는 욕실(각각 1~2인용), 부분적으로 가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전화, 라디오 및 TV 연결, 비상 호출 시스템. 케어욕조, 미용실, 발관리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스노젤렌 객실. 체조와 앉아서 춤을 추는 공간, 포지티브 오르간이 있는 기도실, 휴게실, 공용 발코니, 겨울 정원, 바비큐 시설(바비큐)을 갖춘 정원 공간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희 요양원에서는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세대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운영법인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 운영법인은 디아코니입니다. 종교법인으로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독일 내에는 카리타스와 디아코니가 사회복지 종교법인으로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카리타스는 천주교, 디아코니는 개신교입니다.
 - 저희 법인이 개신교라고 해서 종교적 차별은 없습니다. 실제 계시는 분들의 종교는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 주변에 있는 교회가 다 연결되어 있어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입소하는 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역행사 참여를 위해 교회 자원봉사자를 적극 이용하는 등 장점만을 활용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이 너무 좋고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입소비용이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양원에 입소비용이 궁금합니다.**
 - 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양보험에서 모든 금액을 지원해주지 않고 일부 자부담 금액이 있습니다.
 - 자부담 금액은 한달에 2,000유로(280만원 정도) 수준이었으나, 최근에 전쟁으로 인해 전기세와 수도세가 많이 상승하여 지금은 3,000유로(420만원) 정도를 자부담으로 받고 있습니다.
 - 독일의 다른 요양원의 평균 비용도 약 3,000유로 정도로 일반적인 직장인이 은퇴하고 받는 연금 평균 금액인 1,000~2,000유로를 감안한다면 모아둔 돈을 보통 1~2년 안에 다 소진하다보니 다소 금액이 비싼 편이긴 합니다.
 - 그래서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에게는 감면되는 사항이 있으며, 꼭 요양원 입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의사의 자문을 통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은 청년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다보니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고 있긴 합니다.

나 주요특징

□ 요양원 주요특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요양원에 의료시스템 수준은 병원과 거의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의사는 없으나, 지역 내 관리 주치의가 연결되어있어 요청 시 즉시 요양원으로 찾아와 진료와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저희 요양원에 강점은 센터장님이 과거 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로 지금은 운영자로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긴급한 의료상황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간호사로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 요양원시설에 대한 특징이 궁금합니다.

- 요양원은 입구를 기준으로 말발굽 형태인 타원형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요양원, 다른 반대쪽에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요양원과 유치원이 함께 있는 시설이 주요 특징입니다.
- 노인은 약 49명 정도 입소하여 지내고 계십니다. 어린이들은 총 59명 정도 있으며, 시설이 생길 때부터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노인과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노래교실, 댄스, 식사동행 등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어린이를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어린이집을 갈 수 있고, 어린이들도 노인들을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 이런 시설의 장점으로는 어린이들이 나이들어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이듬에 따라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노인들에게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습니다.

□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에 특징이 있을까요?

- 저희는 인종에 상관없이 직원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들이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언어, 문화까지 이해를 해야 노인분께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에 최대한 다양한 인종에 직원들을 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정원이 다 채워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 여기는 라이프치히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요양원이라 대기자도 많습니다. 만약 병원측에서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경우 임시 대기자를 위한 방을 따로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시로 방을 내어주고 다른 디아코니 요양원을 찾아보고 그 요양원으로 연계를 합니다. 연계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해당 요양원으로 옮기고 싶다고 하시면 정원이 빠졌을 때 입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 기관 담당자가 생각하는 현재 주요 사안

- **최근에 독일 내 요양원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제일 큰 것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수도세랑 난방비, 전기세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에 따라 운영비가 너무 오르다보니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없어지는 추세고, 저희 요양원도 운영비 상승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 보통 자부담 받는 비용을 인건비 + 직원복지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운영비가 너무 올라서 자부담을 올렸지만, 직원들의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대형법인이어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지만 작은 요양원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독일은 현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이런 인력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비용으로 직원복지를 늘려 최대한 퇴사하지 않도록 하고 인력들이 신규인력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디아코니 법인을 활용하여 인력을 수급하기도 합니다. 특정 시설 인력이 부족한 경우 요청에 따라 보충해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저희 시설에서도 다른 센터로 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업무가 너무 힘들다는 요청이 있어 노숙인 센터로 이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복지라 생각하고 직원들이 나가지 않게끔 최대한 복지를 늘려서 인력을 붙잡아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시설장님께서 인력과 관련하여 생각하시는 주요 사안이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 인력난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자면 난민을 받아서 육성을 통해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인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언어가 안되다보니 인력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 실제 저희 기관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등 다양한 인종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독일 어학을 배울 수 있게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직원은 해당 나라에서 간호사였지만 독일에서는 인정받는 절차가 어려워 간호사로서 실력은 있지만 활용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 그리고 실제 인력 배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발보험 1~5등급 기준에 따라 인력이 배치되는데 너무 아프신 4~5단계분들은 사실상 누워만 계시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 없지만 가장 많은 인력 배치가 됩니다.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 2~3단계분들이 제일 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 배치가 적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끝으로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모르던 병을 빨리 알게 되어 대상자 수가 늘어나고 기대수명도 늘었습니다. 자녀들이 없는 분들이 많아 가족돌봄으로 해결이 안돼 시설의 수요는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인력 문제는 정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라 사진자료



요양원 내부 소개



현장 질의응답 및 인터뷰



요양원에 지정된 담당 의사 리스트

자신이 원하는 의사를 직접 고를 수 있으며, 의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됨



단체사진

5-1 [2일차] '라이프치히' 카리타스 노인사무소

구분	세부내용
<p>기관 정보 (카리타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카리타스는 국제 옹호 활동을 통해 가능한 다른 관할 단체들과 협력하여 세계의 빈곤 문제들을 연구하고 인간 존엄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제 카리타스는 가톨릭 신자들과 선의의 모든 이들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기꺼이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일깨우고자 노력합니다. ○ [카리타스]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 및 업무 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 및 사회적 문제, 인간의 권리 증진 및 구조, 난민의 권리와 유무, 주거 상태, 다문화적 만남의 기회, 어학 강좌 찾는 데 도움, 일자리와 주거지 찾는 데 도움, 사회복지 및 보험이 필요한 경우 동행 및 방문, 자발적인 출국 및 향후 이민자를 위한 재정지원 마련 • 카리타스 회원 기구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 실천, 인도적 지원, 인간 발전, 개발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 세계의 빈곤 문제 연구를 하고, 빈곤의 원인과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 개인과 공동체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 지역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데 협조하며, 회원 기구들의 자국 내 사업과 국제협력 사업을 조정한다. 따라서 긴급 재난 시 전 세계 차원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조정한다. • 교회 기구들과 다른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국제 기구에 대표를 파견하거나 상주시킨다. ○ 주소 : Ruth-Pfau-Str. 204107 라이프치히 ○ 홈페이지 : www.caritas-leipzig.de
<p>선정사유 (방문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프치히에서 가장 큰 시내 인근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 다른 지역에 없는 카리타스 내 노인사무소를 운영. 종합적인 상담 제공 후 서비스 연계까지 지원해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카리타스는 독일 내 가장 큰 사회복지 종교법인으로 카리타스 법인 이해와 함께 노인사무소를 함께 견학할 수 있기에 채택

추가 방문 기관 정보 (노인사무소)	<p>○ [노인사무소] 주요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사무소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리타스 법인 산하시설 중 라이프치히에서만 운영하는 종합상담소 - 라이프치히에서 노인사무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목적 및 절차, 장소 등 여러 면에서 카리타스가 적합하기에 이 사업을 수탁 진행 • 노인사무소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문화, 교육, 주거 등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종합상담 공간 - 상담 후 필요한 욕구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돈이 없는 경우 → 재정지원 서비스 연계 및 신청 안내 ※ 예) 주거 공간이 필요한 경우 → 카리타스 내 주거 서비스 연계 -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 내 다툼, 자녀 문제까지 지원
-------------------------------	--

5-2 [2일차] '라이프치히' 카리타스 인터뷰

가 기관사항

□ 노인사무소를 카리타스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종교법인에서 운영했을 때 시스템적으로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라이프치히 카리타스는 시내에 가장 밀접하게 있는 사회복지시설이기에 사람들이 방문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리타스라는 법인에 대한 신뢰감이 높기에 모임을 만들어도 활성화가 잘되고 인지도가 높습니다.
- 단점이라고 한다면 카리타스는 천주교 법인입니다. 종교적인 색깔을 최대한 배제하고 상담이나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상담이나 연계과정에서 이러한 종교색을 띄는 일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른 지점 카리타스와 비교했을 때 라이프치히 카리타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우선 독일은 의료보장 시스템이 다 공통으로 똑같기에 큰 차이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라이프치히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노인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정도만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게 아닌 주마다 운영하는 것으로 라이프치히에만 있습니다. 다른 지점은 별개의 지점으로 그 주에 특성을 가지고 운영되기에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노인사무소를 만들게 된 주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실 상담을 해주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지역에 있는 노인들끼리 만나게 해주는게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 제일 시내 인근에 있는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성당이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혼자사시는 외로운 노인분들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게 주요 목적입니다.

나 주요특징

- 한국에는 고독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독일에서도 고독사 문제가 있을까요?
 - 독일에서도 고독사 문제는 존재합니다. 저희 라이프치히 지역에서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찾아와서 청소도 하고 집안일을 도우면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그리고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75세 생일이되면 그 노인분께 건강검진 받으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연락이 오는 분들은 제외하고 안오는 분들만 선별하여 다시 유선으로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과정들 안에서 개인의 정보가 공개가 되는데 독일은 개인정보에 매우 민감하여 어떤 사안이든 개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문제가 있어 저희도 시도를 하지만 방문, 편지, 유선전화 등 모두 개인이 허용했을 때만 가능하며, 추천하는 정도가 최선으로 개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끝까지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 체코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시작하였습니다. 75세 노인을 기준으로 라이프치히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적어서 건강검진과 함께 프로그램 이용권유를 하는 편지를 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 10년 전 체코에서 이 시스템을 발견하고 도입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시행한지 4년정도 되었으며, 라이프치히시는 4% 정도 수준이 응답하였고 타 지역은 2~6% 수준입니다. 지금은 경과를 보면서 대상자 수를 늘릴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75세로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 65세 노인의 경우 수발보험에서 안내 차원으로 이미 한 번의 설명을 하기에 그 후, 10년인 75세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75세 전인 더 이른 나이에 보내는 경우에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받아 들이고 싶어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감정으로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0세로 하고자 했는데 지역에서 너무 시기가 늦다고 판단하여 75세로 조정하였습니다.

- 전화나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왜 편지를 선택했나요?
 - 독일은 아직도 중요한 문서를 편지로 주고 받는 문화가 있어 자연스럽게 편지를 선택했습니다. 전화의 경우 노인들이 받았을 때 귀찮아하거나 자신을 노인 취급한다며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기에 2차적인 방법으로 구분했습니다.
 - 독일은 의료보험이 무료로 이용되어 대부분 지역 내 자신의 주치의에게 한 달에 한 번 이상 의사를 만납니다. 매달 자신을 케어해주는 의사여서 신뢰도가 높아 해당 의사를 통해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다 기관 담당자가 생각하는 현재 주요 사안

□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 무엇이 있나요?

- 노인과 다른 세대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고 노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청년 프로그램을 만들어 노인과 함께하게 된다면 그것도 노인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집, 난민 등 다양한 집단이 노인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세대 간 분리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이 사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왜냐면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인과 아동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내 부모들은 노인과 아동이 만나야 한다고 느끼고 있고 그 수요에 맞춰 노인복지시설이지만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연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남입니다. 노인이든 청년이든 아동이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대화도 하고 연대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특정 대상을 위한 시설과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모든 대상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노인과 어린이가 만날 수 있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사업이 있나요?

-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하교하는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집으로 데려다주는 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교하는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가서 놀아주고 정해진 간식을 먹고 부모가 귀가하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데려다주는 시스템입니다.
- 부모들이 이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인기가 많습니다. 자원봉사자 노인분들이 부족하여 이용 받는 수가 적다는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 노인분들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나요? 일반인인데 검증과정이 있나요?

- 한국처럼 기초적인 서류는 제출하고 있으나 그분들에 대한 신뢰 검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은 신뢰사회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국과 다르기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는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 노인과 요양원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요?

- 노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마치고 은퇴자가 된 것뿐인데 왜 나를 노인으로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나이들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는 퇴근하임이라고 해서 '퇴근하고 은퇴하고 가는 곳이야'라는 자연스러운 어감이 있었는데 통일하고 나서 요양원으로 통합된 것이 아쉽습니다.
- 요양이라는 단어도 내가 마치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어감이 있어 좋게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혼자 지내기 외롭기에 요양원에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단어의 부정적인 느낌이 오히려 입소를 거부하게 만들고 요양원에 입소하여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가족에서 돌보는 것을 원하는 노인들도 다수 있습니다.

라 사진자료



카리타스 법인의 이해



노인사무소 소개 및 안내



노인사무소 진행 프로젝트 소개

해당 장소는 프로그램실로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 사례 소개



단체사진

구 분	세 부 내 용
<p>기관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12월에는 기술 타운홀이 설립되어 많은 "기술적"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시 사회과의 부서들이 한 지붕 아래 함께 모였습니다. • 사회복지사무소가 위치한 기술 시청은 라이프치히의 주요 도로 중 하나에 상대적으로 중앙에 위치하여 도시의 모든 지역과 자치구에서 접근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 기술 타운홀은 A, B, C로 지정된 3개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택은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프치히시의 사회복지공무원과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 사무소는 장애인, 노인, 빈곤, 노숙자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서비스를 연계하며, 주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자문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 직접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을 통해 자원을 연결하고 지역 내 네트워크 관리, 노인 자조모임 운영 등을 주업무로 하여 라이프치히 노인 전반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음. ○ 주소 : Technical Townhall, Prager Str. 118 ○ 홈페이지 : https://english.leipzig.de/services-and-administration/bureaus-offices-and-other-facilities/technical-town-hall
<p>선정사유 (방문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프치히시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무국으로 시청 소속이며,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전반적인 시의 사회복지 시스템, 운영, 사업, 정책 등을 알아보고자 함. - 사회복지사무국의 사회복지공무원과 복지관련 여러 부서의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시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인터뷰 및 질의응답을 하고 남양주 희망케어 시스템과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함. - 노인 및 장애인 배리어프리 관련된 물품 사무소를 견학하여 독일 및 라이프치히 노인복지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자 채택함.

6-2 [2일차] '라이프치히' Social Welfare Office 인터뷰

가 주요 인터뷰

- 현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데 지원서류를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면 서류도 작성해주고 서비스를 연계 해주고 있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청해도 연계되어있는 기관에서 방문을 통해 상담과 연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라이프치히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부서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 저희 기관은 직접적인 서비스보다는 지역 내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만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의 상담을 통해 재정, 주거, 의료, 법적 문제 등 세부적인 항목으로 분류하여 부서별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보니 일이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업무분장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있기에 체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 주요 사업 및 정책, 예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오늘 방문한 디아코니 요양원, 카리타스 노인사무소 등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일부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관을 연계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예산은 모두 시에서 받고 있으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최대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에 따라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빈곤하다고 특별히 대우받은 것이 아닌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저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사진자료



사회복지사무국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인터뷰

6-3 [2일차] '라이프치히' barrierfreees Wohnen

가 기관소개

- barrierfreees Wohnen : 노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내부 설계 서비스
 - 노인이 편하게 생활 수 있도록 내부 설계부터 건축, 디자인까지 통합서비스 제공
 - 건축 및 시공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물품 지원 서비스

- 물품 서비스 지원 기준
 - 수발보험 등급(1~5등급)에 따라 지원금액을 선정하여 인테리어 서비스 지원
 - 평균적으로 4,000유로(55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음 → 해당 금액까지는 무료
 - 휠체어를 타는 경우 : 10,000유로(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기본지원 4,000유로부터 시작하여 불편한 항목에 따라 차등 지원
 - 등급을 받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를 대비한 지원 항목도 있음
 - 물품 지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4,000유로를 이사비용으로 쓸 수 있음

- 자신의 위험 수준에 따른 단계적 지원
 - 안전사고 방지(가장 기본적인 단계) : 카펫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정해주기 등
 - 장비 추가(중간단계) : 도구를 사용하여 도움을 주는 방법(도구는 대부분 무료)
 - 공사 진행(최종단계) : 개인이 하는 경우X → 요양원 및 시설에서 사용(자부담O)

- 기타 담당자 질의응답 사항
 - 기관 내에는 10~15년 전에 제공되던 제품들이 있는데 이는 너무 비싼 금액의 제품들은 노인들의 경제력으로 살 수 없기에 기본적인 지원금액 4,000유로를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 구비되어 있음. 실제 구매 시에는 최근에 나온 세제품으로 보내줌.
 - 최신식 기계를 가져다 놓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은퇴 후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들은 기초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대다수로 좋은 제품보다는 보장되는 항목 위주로 다양한 물품을 구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최신식 설비 또는 큰 공사가 진행되는 물품의 경우 대부분 시설에서 진행되고 재가 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그 이유는 들어가는 금액이 많아 재가 서비스로 진행되는 것보다 차라리 시설 하나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에 가급적 공사가 필요한 서비스는 시설에서 진행하는 편.
 - 대상자가 요구하면 최대한 맞춰서 진행되는 편이며, 금액이 부족한 경우 시에서 지원금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음.

나 barrierfreeies 지원물품



Technical Townhall 1층 위치

시청에 찾아온 노인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1층 중앙에 공간을 설치



화장실 규격 및 변기 제품

거동이 불편하신 분일 쓸 수 있는 화장실 규격과 변기 제품 설명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도구

앉아서 샤워할 수 있도록 의자를 구비 가족들이 쓸 때는 올려서 사용



욕조 입구 공사

높은 욕조에 턱을 넘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욕조 입구를 만드는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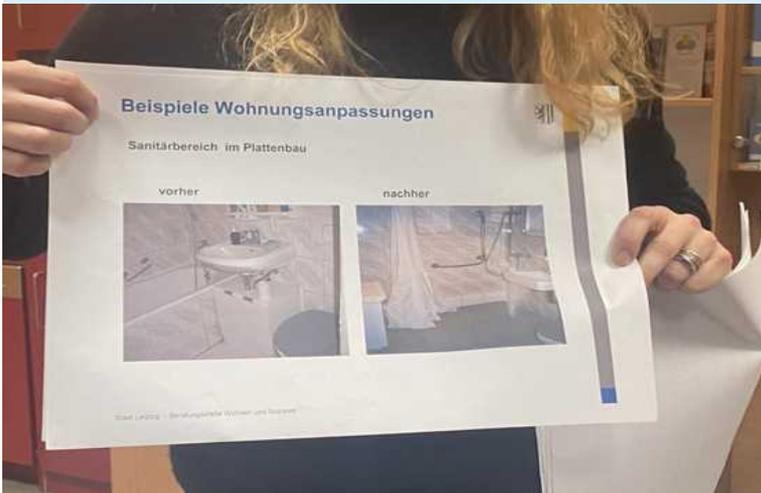
높낮이 조절 가능한 부엌

휠체어 사용자 편의를 맞춰 높낮이와 공간의 크기를 고려한 부엌



책상 손잡이

책상에 손잡이를 만들어 일어설 때 지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



<실제 공사사진 예시>
수발보험 지원금액
내에서 지원하다보니
공사를 하더라도
간단한 공사위주로
진행됨을 보여줌

<제공되는 물품>
수발보험 지원금액
4,000유로 기준
무료로 지원받는
종류의 품목들로
해당 제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이 있음



자동화 침대



계단 자동 리프트



문턱 넘는 의자

공사가 필요한 해당 물품들은 보통 시설에서 설치하고 있음

7-1 [3일차] '베를린' 연방정부 세미나

구분	세부내용
기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를린 연방정부와 시단위의 보건 및 장기요양 서비스를 관리 및 운영 등 총괄하는 부서로 노인 및 장애인, 시민들의 의료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시설 등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주요 역할로 운영되고 있음. ○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 돌봄의 미래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노인돌봄 시스템 문제, 돌봄구조의 문화간 개방과 관련된 문제, 국가 의료구조 계획, 데이터를 기반한 향후 독일의 돌봄문제 등 • 보건정책 수립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보건 정책과 관련된 계획과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 지역사회 및 가정간호 환경 구성을 위한 연방 및 시 전체의 장기요양, 노인복지, 의료정책 구축 • 공중보건 및 위생, 예방, 비상사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및 위생 기준 구축, 위기상황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 등 • 보건 인력 확보 및 의료 협력과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 전문가 및 간호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 관리 - 지역 의료 기관, 의사 협회, 간호사 단체 등과 협력하고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 내 의료생태계 강화 • 의료시설(요양시설 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시설 건설계획, 입원환자 치료시설의 홍보 및 자금조달, 공공 의료구조 확대 조치 - 시내 의료시설 운영 및 관리 감독, 의료시설의 효율성과 안정 수행 ○ 주소 : Oranienstraße 106, 10969 베를린 ○ 홈페이지 : https://www.berlin.de/sen/wgp/ueber-uns/organigramm/abteilung-ii/
선정사유 (방문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를린은 노인의 고독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특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의 모범 사례 ▪ 독일 내 타 주와 비교하였을 때 베를린의 우수한 장기요양 서비스 ▪ 베를린 주 과학, 보건 및 장기요양부서 담당 부서장(Anja Ludwig 박사) 미팅

7-2 [3일차] '베를린' 연방정부 인터뷰

가 기관사항

□ 기관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베를린은 하나의 주이기도 하면서 도시이기도 한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연방정부로서의 역할과 베를린시 단위의 역할이 따로 있으며, 그 2가지 역할을 한번에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연방정부에 보건과 요양을 담당하는 부서만을 소개드릴 예정이며, 현재 해당 부서의 직원총 총 60명으로 4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일을 하고 있습니다.

□ 4개의 부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A구역 : 요양의 미래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B구역 : 인력 확보와 교육 지원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C구역 : 재정지원과 요양시설 계약관리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D구역 : 수발보험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며, 규칙을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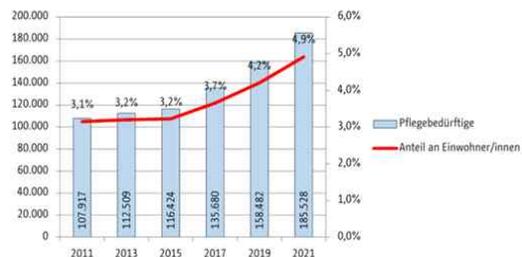
□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화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데이터를 통해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미래에 몇 명이나 될지 예측하고 어떤 문화에서 오는지 데이터를 통해 구조화된 틀을 만들어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1년 12월 31일 기준. 베를린 72만명중에 65세 인구는 19.2%이며, 노인인구 23만 명 중에 80세 이상 인구는 6.3% 수준입니다. 증가 추계를 따라 2023년을 예측한다면 베를린 전체인구는 79만, 65세 인구는 20.4%, 노인인구 24만 명 중 80세 인구는 6.2% 수준으로 예측 할 수 있으며, 매년 10% 가속도를 붙여서 오른다는 것을 확인하여 그에 맞춰 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인 데이터가 궁금합니다.

- 해당 그래프는 노인들 중에서 돌봄이나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만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를 그려 추계를 본 것입니다.
- 11년 대비 21년에는 4.9%까지 증가한 것을 보았을 때 케어해야 할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Pflegebedürftige Personen in Berlin 2011 bis 2021
(nach SGB XI, jeweils 15.12. des Jahres)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숫자

□ 정부가 원하는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 데이터를 계속보면 21년에는 18만 정도 간병을 받아야 하고 30년에는 20.5만명이 간병을 받아야 합니다. 이분들이 모두 시설로 수용할 수 없기에 가족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정부의 방향성입니다. 현재 51%가 가족에서 돌보고 있는데 85%까지 가족 돌봄 수준을 올리려고 하며, 이런 구체적인 추계를 잡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 방향성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가족돌봄에 집중하는 이유는 베를린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베를린 55.1% 전체가 1인 가족입니다. 혼자 사는 인구가 많아 이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모두 가족돌봄 부재로 이어지기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베를린은 외국인 비율이 높아 가족과 자녀들이 타국에 살거나 베를린 내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미리 데이터로 파악하여 사전에 대응하고자 시스템화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주요 역할입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 총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실바넨스, 2. 노인방문 요양서비스, 3. 노인 요양의 디지털화입니다. 이중 2번과 3번은 오후에 직접 담당자들을 만나 현장을 견학하고 인터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 1번 실바넨스라는 프로젝트만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외로운 노인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외로운 노인이 외롭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와 파킨슨병 우려가 높다는 결과를 토대로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 먼저 실버텔레폰입니다. 매일 8~22시 사이에 전화를 걸면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상담을 통해 약간의 우울감 해소도 되고 너무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대화 중 이상한 부분이 있어 담당자가 직접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제 방문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좋으나 베를린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인데 독일 전체에서 사용하다보니 전화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다음으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연계가 되어 일주일에 한번은 무조건 전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설에 있는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매칭하는 시스템으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노인분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대상자는 일부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규모가 작고 무보수로 진행하다보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 1번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를 마무리하고 2번과 3번 프로젝트는 오후 시간에 직접 현장 담당자와 실제 견학을 통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 기관 담당자가 생각하는 현재 주요 사안

□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무엇인가요?

- 독일 내 인력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결국 가족돌봄의 전환도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입니다. 가족돌봄을 하더라도 보조인력을 통해 가족돌봄 보호자가 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인력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 그리고 정신적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사회에서 분리되지 않게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러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고 무슨 서비스를 연계해줄 수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지만 서비스를 연계해 줄 수 있고, 노인분들도 그 과정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시설에 오는 노인분들은 이동이 가능한 노인분들만 오기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까지 챙겨주기 위한 방법까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서비스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끝으로 가족돌봄의 경우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주(week)를 만들어 가족을 돌보는 가족에게 콘서트를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런 프로젝트는 2020년도 컨셉을 만들고 시행한 것입니다. 올해까지도 연구를 계속하면서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12구역 중 7구역까지 확장하였으며, 나머지 지역까지도 확정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 사진자료



베를린 연방주 소개 세미나



단체사진

8-1 [3일차] '베를린' Malteser Hilfsdienst 방문 (독일 가족 간병인 협회)

구분	세부내용
기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lteser Hilfsdienst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기반의 사회복지 단체로서, 주로 의료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Malteser"는 이탈리아의 성 요한 기사단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이 단체는 기독교적 가치와 봉사 정신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인 의료와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 주로 응급의료 서비스,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난민 지원, 재난 구호와 긴급상황 발생 시 지원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국제적인 봉사와 구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독일 내외에 다양한 지역에도 봉사하고, 전문가들이 함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 및 의료 도움 서비스 지원 •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노인, 장애인 등) • 난민 및 이민자 지원 • 재난 구호 및 긴급상황 대응 • 자원봉사 및 교육 ○ 주요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방문 요양서비스(베를린 연방주 차원의 프로젝트) • 실제 대면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주는 역할 ○ 주소 : Alt Lietzow33, 10587 Berlin ○ 홈페이지 : https://www.berlin.de/sen/wgp/ueber-uns/organigramm/abteilung-ii/
선정사유 (방문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내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및 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기관으로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 간의 서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과 정책적, 실무적 함의를 얻고자 함. • 베를린 연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연방정부와 시설 간의 시스템적인 관계, 프로젝트 사례 등을 이해하고자 채택함.

가 프로젝트 소개

- 베를린 연방 주 차원에서 노인 영양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현황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베를린 12개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지역에서 원치 않았기에 현재 저희 협회 총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좋은 프로젝트이기에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 해당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먼저 전화를 받아 그 사람에 대한 욕구를 파악합니다. 남편이 죽어서 힘들다고 하는 분께는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치매가 걸리신 분께는 치매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가구에 방문하기 전 사전에 그분 근처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보고 방문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법까지 함께 신청 해드리고 있습니다.
 - 관리하는 수준은 30만명 있는 지역에 2명 정도의 방문 상담 사회복지사가 있어 1명이 15만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15%밖에 이용을 못해 1명당 약 1.5만명 밖에 관리는 못하는 수준입니다. 1년에 총 1명이 1,300번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집중하고 있는 것은 광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최대한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의 장점은 신청과 조건없이 전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광고하고 있습니다.

나 프로젝트 사례

- 프로젝트를 하면서 주요 사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여성 노인분들이 전화해서 남편이 치매가 걸렸는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치매 상담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 방문을 했는데 옆집 남자 노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 여성 노인분은 암 환자였고, 남편분이 치매걸리기 전에는 병원까지 치료를 받게끔 이동하였으나 지금은 치매로 인해 옆집 노인분께서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옆집 노인분도 나이가 꽤 있어서 차를 운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방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을텐데 치매랑 경제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분의 암 치료를 위한 이동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3개월 뒤에 만났습니다. 많은 케어가 되었다며 기뻐하셨고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기에 종합적으로 케어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 프로젝트를 하면서 담당자로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저의 역할은 열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고 문 뒤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열쇠가 되어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방문 서비스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전화를 한 당사자가 생각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를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 나아지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알게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열쇠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다 기관 담당자가 생각하는 현재 주요 사안

□ 프로젝트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우선 노인분들에게 신뢰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신뢰감을 얻고 다음부터 하나씩 제안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사회복지사가 찾아보면 ‘아 또 뭐 시키러 왔네’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신뢰감을 얻는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지역 내 주치의를 활용하는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네트워크가 잘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문 서비스 이후 연계가 저희 프로젝트의 기본이기에 미리 여러 부서와 만나고 이야기 하면서 정보를 얻고 최대한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네트워크를 중시하는데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최대한 네트워크 연결고리를 한곳으로 보아야 합니다. 채널이 하나여야지 그 채널로 계속 소통이 가능합니다. 채널이 많으면 결국 효율이 나오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정부차원에서 한 채널로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베를린 연방정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네트워크가 없었더라면 애초에 할 수도 없었습니다.

라 사진자료



방문 상담서비스 담당자 인터뷰



단체사진

9-1 [3일차] '베를린' 스마트홈 소개

구 분	세 부 내 용
<p>기관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치료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모든 질문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중앙 연락창구입니다. 당사는 Care 4.0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당사 웹사이트에서 귀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내 독립성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시스템의 지원을 받습니다. 돌보는 가족은 어려운 업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앱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베를린 모든 시민들이 돌봄과 관련된 디지털화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모든 질문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앙 연락창구로 디지털 요양을 위한 도구 및 시스템 개발 지원 • Care 4.0 알리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 신문, 라디오 등 광고 송출, 실제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회, 아파트 견학 제공 • 베를린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요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이디어 도출 및 실험을 통한 방법 착안 ○ 주소 : Ernst-Reuter-Platz 7, 10587 Berlin, 독일 ○ 홈페이지 : https://www.lebenpflagedigital.de/
<p>선정사유 (방문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안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가족돌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요양과 디지털을 어떻게 융합하는지 견학하고자 함. • 한국도 디지털화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은 발달 되었으나, 실질적인 요양시스템에 접목한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없다. 디지털요양 전문기관 견학을 통해 한국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용하고자 함.

9-2 [3일차] '베를린' 스마트홈 견학

가 기관소개

- 해당 시설과 요양4.0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이 시설은 다양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IT기술과 관련된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생긴 이유는 디지털 요양 스마트 플랜을 만들어 중심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독일사회는 아직까지 디지털에 대한 인식이 엄청 낮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이라고 생각하면 엄청 불편하다고 느끼고 기계 다루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보다 친숙하게 만들어 거부감을 해결하고 디지털화를 통해 불편했던 시스템을 개선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 요양4.0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 노인분들이 요양이 필요해도 본인 집에서 지내고 싶어합니다. 이유는 요양시설이 비싸고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디지털화로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나라의 점진적인 목표는 늘어나는 요양인구를 가족돌봄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을 스마트 요양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해보고자 이렇게 기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 구조는 2018년도 전문가들이 모여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만들었고 처음으로 모임에서 만든 제도는 스마트폰에 연결된 기구나 도구를 제공하여 집에서 디지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 몸이 아픈 노인들은 혼자살기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디지털화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기기들은 영어로 되어있고 전문적인 용어로 인해 독일 노인들에게 거부감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 해당 기관에 잘되어 부분, 또는 장점이 있나요?
 - 저희는 네트워크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방문을 통해 가정에 직접 스마트기기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노인모임과 자조모임에 참석하여 노인분들에게 스마트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직업학교와 간병인들에게도 스마트 교육을 실시하여 스마트 시스템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저희 교육은 단순 강의 형태가 아닌 실제 기술을 현장에서 보여주기에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효과가 있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만나 개발과 함께 실제 적용 테스트를 해보는 효과가 있어 사용자 편의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주요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나 스마트홈 물품소개

구분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조 물 범람 방지 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은 대부분 월세로 살고 있음 - 깜박하고 물이 넘치면 공사 비용 큼 ○ 작동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터가 젖으면 알아서 꺼지는 형태 - 필터는 작동 후 교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약 자동 배식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알약을 복용하는 경우 사용 - 의사가 방문하여 직접 약을 넣어줌 - 어플을 연결하여 알림 서비스 가능 ○ 약 먹는 것으로 상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림 후 먹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으로 약을 배부해주는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을 채워 놓으면 알아서 컵이 나옴 - 시간에 맞춰 알림과 복용량을 확인 ○ 약을 먹지 않는 것으로 상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분 내 안먹으면 가족에게 연락 - 약을 2번 이상 안먹으면 응급 연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리모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것을 선호하지 않은 독일 노인들을 위해 만든 스마트 리모컨 - 정말 간단한 그림패드로 구성 ○ 스마트폰 기능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거부감 있는 노인 대상 제품 - TV로 연동해서 스마트폰처럼 활용

다 기관 담당자가 생각하는 현재 주요 사안

- 해당 시설에서 생각하시는 주요 사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모든 기술은 사람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대부분 음식점에 키오스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아직까지 노인분들이 적용하지 못했기에 키오스크 도입을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 만약 노인분들에게 키오스크 도입에 대한 타당한 근거없이 설치를 하게 된다면 시위가 벌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시스템은 반드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사람들과 충분한 교육과 합의를 통해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담당자분께서 물품을 개발할 때 생각하는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물품을 개발할 때는 2가지를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발보험 지원비용 4,000유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비용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집세를 내고 살아야 하기에 공사가 없이 착용하거나 붙이는 간단한 물품이어야 하기에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여부를 생각합니다. 저희는 절대 배터리 교체하는 형태는 쓰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작동 문제가 발생한다면 노인분들이 그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시스템은 설치 후 노인분들이 손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 기능으로 가족 또는 간호사와 어떻게 연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물품을 만들 때 고민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 모든 물품개발을 사람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여건과 시스템에 대해 궁금합니다.
 - 저희는 직접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제공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연구만 할 수 있기에 가격을 낮추고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만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운영비가 전액 나라에서 지원되고 있기에 돈을 벌기 위한 시간보다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 마지막으로 디지털 요양의 미래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은 '로봇으로 케어하는 것이 진정한 케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어라는 것은 인간과 교감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로봇과 이런 교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정말 건강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 그리고 로봇청소기가 건강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청소는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께는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봇청소기가 도입되면 움직임이 아예 없어질 수 있기에 이런 것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완벽한 디지털 요양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라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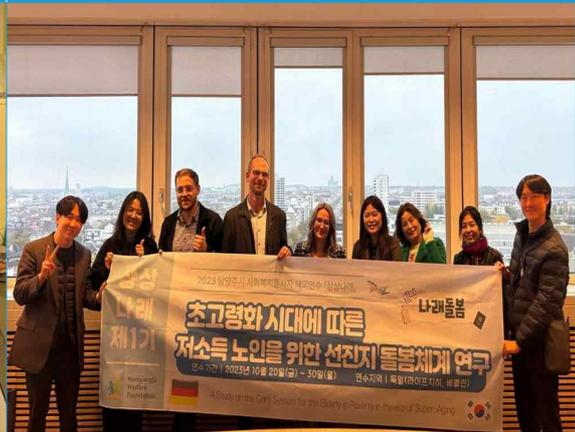
요양 4.0 소개



관계자 및 담당자 인터뷰



스마트홈 견본 전시장 견학



스마트홈 단체사진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상상나라

2023년 1기 '나래돌봄'

N

결론 및 제언

1. 한국 사회복지 적용방안
2. 연수 후 활용방안
3. 연수 후 기대효과

04

결론 및 제언

1

한국 사회복지 적용방안

가 정책적 방안

- 남양주시만의 노인 의견수렴 전달체계 마련의 필요성
 - 독일 라이프치히의 경우 노인대표 제도를 마련하여 노인들이 직접 정책에 대해 건의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함.
 - 남양주시도 클라이언트 또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전달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함.
 - 노인대표 제도의 장점은 클라이언트의 의견이 정책까지 도달하는 거리를 축소할 수 있어 빠른 피드백과 욕구에 맞는 사업운영이 가능함.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방향성 설정 및 단계적 정책 시행
 - 베를린 연방정부에서는 노인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획함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한 추진방향을 설계하여 진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 장기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현재 돌봄인력으로 케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방향인 가족돌봄이라는 해결책을 만들어 가족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방향성을 찾음.
 - 그에 따라 노인들의 욕구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 남양주시 노인에 대한 기초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기 및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 단계적인 시행 목표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 독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은 시설 간의 네트워크 연계가 촘촘히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소통채널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시 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음.
 - 남양주시도 시차원에서 사회복지사들 간의 네트워크 및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노력해야 함.

나 실천적 방안

- **노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채널 발굴 및 활성화**
 - 독일의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닐 수 있는 중앙 시내에 인접하게 위치하여 어떤 노인이든 자유롭게 들어와서 상담이 가능하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노인정,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교회, 성당, 식료품점 등 다양한 소통채널 안에서 홍보와 자조모임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어 있음.
 - 한국에서도 노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노인정, 노인복지시설로 단순화하는 것이 아닌 노인들이 실제로 많이 다니는 종교시설, 식료품점, 편의점, 카페 등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 한국은 세대별로 분리되어 연대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독일에서도 크게 고민되어 아동이 노인과 만날 일이 없어 사회적 갈등과 세대 간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임.
 -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에서도 아동, 청소년, 청년,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에게 다양한 계층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대 간의 융합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들만 모여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닌 노인 들도 다양한 연령층과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목적과 체계,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제언함.

- **사용자 또는 대상자인 노인의 욕구 중심 서비스 제공**
 - 독일은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사용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
 - 물품을 제작하기 전 사전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 제작 후 배포하기 전 사용방법에 대한 지역 노인들에 대한 검토, 실제 사용 후 노인들이 사용하기 적합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실시함.

- 하나의 서비스가 진행되기까지 과정이 많고 오래 걸리지만, 대상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향점을 가지고 한국 사회복지 실무에서도 욕구조사, 컨퍼런스,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이 필요함.

□ 노인 연령층 안에서도 계층의 다양화 필요성

- 독일의 경우 65세 이상을 모두 노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노인 내에서도 차별화를 두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 65~75세는 1차 노인 시기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에 저위험 대상으로 일상적인 문제 우울, 문화, 경제 등을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75세 이후와 80세 이후부터는 2차, 3차 노인으로 분류, 고위험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체로 독일에서 지원되는 특수한 프로젝트는 75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노인 안에서도 대상자를 구분한 지원정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함.

2

연수 후 활용방안

가 단기 계획

□ 연수대상 기관별 현장답사 직원교육 실시

- 기관 내 회의 등 활용하여 연수대상자의 연수결과 발표 1회 진행
- 교육에 따른 함의 및 기관별 세부 적용사항 검토

□ 정책 제안 및 컨설팅 활동

- 독일 기관방문을 통해 알게 된 주요 사례 지역 내 노인복지 시설 공유
- 남양주시 복지정책 제언을 통해 실질적인 반영 추구의 노력

□ 연수 참가자들 간의 지속적인 교육 및 연구

- 지역 내 전파를 위한 연수 참가자들 간의 자체 세미나 진행
-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한 독일모델의 남양주시 적용 가능성 검토

나 중장기 계획

- 남양주시 노인돌봄 관련 협력기관 자료 공유
 - 남양주시 노인복지 관련 기관 대표메일로 연수보고서 송부
- 지역 내 세미나, 발표회, 보고회 참석을 통한 내용 전파
 - 비전포럼, 정책포럼 등 지역 내 발표회 참석을 통한 내용 전파
- 재단 해외연수 2기 진행에 따른 사례발표
 - 단계적 해외연수 진행에 따른 1기 사례발표 및 기초자료 활용
- 지역별 컨퍼런스, 온라인 자료 공유 등 외부 전파
 - 타시군 컨퍼런스 참석 및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의 연수결과 공유
 - 남양주시복지재단 등 참가자 기관별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 및 공유
- 언론매체 및 소식지, SNS홍보를 통한 전국단위 공유
 - 보도자료 송출 및 각종 소식지 연수결과 안내
 - 페이스북, 인스타 등 기관 홍보창구를 통한 전국단위 공유

3

연수 후 기대효과

- 한국·독일 간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남양주시 사회복지 문제 발굴
- 새로운 문화 및 환경 학습에 따른 사회복지 관점의 변화
- 독일의 해외연수 문화탐방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소진예방
- 남양주시 사회복지 정책적·실천적 적용방안 제언 및 실무적 활용
- 남양주시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향상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사회복지중사자 해외연수 상상나라
2023년 1기 '나래돌봄'

V

연수소감

1. 동부희망케어센터 팀장 김영혜
2. 서부희망케어센터 대리 조명선
3. 남부희망케어센터 팀장 박세규
4. 바비두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이미현
5. 해피트리요양원 대표 장공자
6. 남양주시복지재단 주임 구자민

05

연수소감

동부희망케어센터
팀장 김영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독일을 배우다.

‘등 떠밀려 지원하였습니다.’라고 인사했던 캡스톤 프로젝트 첫날이 생각난다.

잘 다니던 IT 기업을 퇴사하고 사회복지를 처음 시작한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 7년 3개월의 생활을 추억으로 남기고 동부희망케어센터로 이직한지 2개월여 만에 결정된 일이었다. 사회복지에서 운영지원 업무는 처음이었고, 해외연수 기간이 9~10월에 진행되면 분명 행정감사, 지도점검 기간이 겹칠 텐데 해외연수가 가능할까, 업무에 대한 적응도 해야 하는데 어느것 하나라도 내가 집중 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들로 남양주시복지재단이 기획한 해외연수 프로젝트 1기에 합류하게 되었다.

낯설었던 캡스톤 프로젝트...

회기마다 나의 역할이 바뀌어 지는 캡스톤 프로젝트는 역할마다 모자를 바꿔 써야 했다. 익숙하지 않은 팀원들은 관찰자임에도 본인의 의견을 말하거나 기록자이지만 기록을 하지 않는 다거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 캡스톤 프로젝트라는 경험을 하며 리더로서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들이 기존의 업무를 하던 방식과 다르게 경험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맨땅에 헤딩이 이거군요?!

“해외연수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정하고 계획해야 한다고요? 와우!” 환장할 노릇이었다. 다들 기관섭외는 자신이 없다고 하는 팀원들을 보며 나의 책임감은 또 움틀거려... ‘제가 해볼게요’라고 했다.

낮선 나라, 언어도 안 통하는 곳에 번역기를 돌려 기관섭외 메일을 보내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 타들어가는 속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그들은 메일은 보는 것인지 왜 된다 안된다 대답은 없는 것인지, 언어가 안되니 전화를 해볼 수도 없고... 결국 섭외 기한까지 일주일을 남겨놓고 처음 팀원들과 계획한 독일이 아닌 호주쪽도 알아보기 시작했다. 독일이 안되면 호주라도 일단 되는 곳을 가야지.

우여곡절 끝에 소개받은 교수님. 근데 보통분이 아니시네요? 우리 팀의 주제가 빈곤 노인의 돌봄에 관련 주제인데, 소개받은 괴를리츠대학의 안드레아 호프 교수님은 독일에서 사회학과 노인학에 대한 저명한 교수님이시고 정부정책에 자문을 하는 분이셨다.

교수님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기관섭외가 되었다. 다만 시차를 극복하며 교수님과 소통을 해야 했고, 메일을 통해 소통해야 하니 주고받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중간에 교수님 휴가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연수 갈수 있는 건가...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출발 5일 정도를 남기고 모든 기관 섭외와 스케줄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제서야 걱정이 아닌 긴장되는 마음으로 연수지로의 출발을 준비할 수 있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독일의 자세를 배우다.**# (1일차) 노인의날 컨퍼런스 참여**

우리팀 프로젝트 주제의 대상이 노인으로 라이프치히에서 해마다 열리는 노인의날 행사에 맞춰 일정을 시작하였다. 라이프치히 시장의 연설로 시작된 행사는 노인 스스로가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였고, 독일에서 2명뿐인 노인 대표직이 라이프치히시에 있다는 것은 노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많은 시라는 것이고 그 대표직은 연방정부 직속으로 속해 있는 공무원이어서 노인을 대표하여 의견을 내면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고 정치적 개입이나 영향력을 크게 받지 않는 자리라는 점 등이 인상적이었다.

오후에 다양한 부스체험도 즐겼다. 노인과 관련된 여러 기관과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서 나와 본인들의 사업과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부스체험이었다.

일정을 마치고 라이프치히에서 건축가로 20년 동안 활동한 분의 안내를 직접 받아 ‘New Townhall’의 전망대 관람을 하게 되었다. 꽤 연세가 있으신데 전망대까지 계단으로 올라 오실 수 있다 걱정했는데, 정말... 숨을 헉헉쉬며 콧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올라와 라이프치히시의 도시계획 역사와 주요 건물들 소개까지 해주셨다.

(2일차) 라이프치히 기관방문.

연수를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독일의 민간법인중 유명한 디아코니와 카리타스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가보고 싶었으나 섭외가 쉽지 않았다. 둘째날 그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디아코니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과 유치원이 함께 있는 Marthahaus기관과 카리타스에서 지원하는 노인사무소를 방문 하게 되었다.

Marthahaus는 요양시설과 유치원이 함께 있는 시설인 만큼 공동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원하는 노인과 아이들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간단한 오전 간식과 노래를 함께 부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양 세대간 정서에 큰 도움이 되어 보였다. 실제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담당자는 말하였다.

카리타스는 큰 종교법인인 만큼 다양한 복지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고, 노인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었다. 현대식으로 지은 성당의 별관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개방 공간으로 다양한 세대가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고민들을 반영한 사업이었고, 실제 그 공간은 어린이부터 학생, 청년, 노인들 까지 공간을 대여하고 이용하고 있었다. 만남이 잦아야 세대들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단절이 없어진다는 취지에서 좋은 아이디어였다.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자유롭고 여유로워보이는 사회복지사들을 만났다. 미로와 같은 건물을 담당자 따라 도착한 회의실에서 우리는 환영하는 각 팀별 담당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주었다. 그들의 역할은 희망케어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 다만 5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각 팀별로 상담과 자원연결의 역할을 하고 직접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3일차) 베를린 기관방문.

마지막 날인 베를린. 베를린 연방주의 과학·보건 및 장기 요양 부에 방문했을 때, 장기 요양부의 부서장인 Anja Ludwig 박사와 그녀의 팀의 팀장님의 베를린의 노인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프리젠테이션 맨 첫장에 “환영”이라고 쓴 단어에 우리를 위해 신경 쓴 모습이 느껴졌다. 연방주 단위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배경과 주요 프로젝트를 설명을 들었고, 이후 이어진 기관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관의 방문이어서 담당 공무원이 동행해 주었다.

이번 일정에서 계획된 스케줄에서 점심시간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정말 촉박한 점심시간으로 라이프치히에서는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하였고, 베를린에서는 걸어가면서 샌드위치를 먹어야할 정도로 빠빡한 일정이었다. 그러나 함께 일정을 해주시는 안드레아 호프교수님과 공무원도 스낵으로 점심을 때우며 동행해 주었기에 감사한 일정이었다. 기관을 방문하며 독일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등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전문직이지만 독일에서도 급여수준 등이 높지는 않다고 하였다.

마지막 기관 방문인 스마트홈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가정에서의 배리어프리 시스템에 대한연구소였다. 본인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절대 정치적 개입이나 기업의 이윤추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연구원은 사람만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며 개발한 상품의 단가를 낮춰

보다 많은 이에게 보급이 되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살 수 있는 품목으로 선정되었을 때의 느끼는 보람을 듣는 우리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일에 대한 애정이 높아 보였다. IT가 발달한 대한민국을 잘 알고 있는 연구원은 독일의 기술이 한국보다 많이 뒤쳐져 있을 수 있다라고 사전에 이야기 했지만 독일의 연구는 오직 사람을 위한 연구 결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공식일정을 마치고 교수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감사인사를 전하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과 교수님의 우리에게 대한 애정어린 프로그램 계획에 눈물이 나왔다. 다시 만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팀을 위해 일부러 출장을 계획하고 모든 일정에 함께해주셨고 이동하거나 쉬는 시간에 이루어진 많은 질문도 귀찮아 하지 않으셨다. 무엇보다 독일의 노인에 대한 돌봄 체계를 시단위와 연방정부 단위에서 다양한 기관과 프로젝트를 보여주기 위해 계획하신 일정에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 소감.

남양주시복지재단에서 처음 시도한 해외연수 참가자 1기로서 좋은 사례를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귀한 경험을 하게 기회를 준 남양주시복지재단에 감사드린다. 각 역할에 충실히 임해준 팀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해외연수를 통해 사회복지사로서 한뼘 더 성장하는 시야를 갖게 되었다. 바쁜 일정에도 흔쾌히 연수를 허락해주시고 따뜻한 배움을 해준 동부희망케어센터의 센터장님과 동료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서부희망케어센터 대리 조명선

배움

단순 해외연수 기획인 줄 알았던 남양주시복지재단 해외연수 「상상나래」는 리더십 훈련 프로젝트였다. 팀별 연수주제 선정부터 연수지를 선택하고 세부일정을 계획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팀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팀 구성원들이 사회복지 안에서 뛰고 있는 필드(노인, 아동 혹은 개인시설, 사회복지관 등)가 다양한 만큼 여러가지 주제가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치열한 의견대립 가운데 팀원들 간 반응·감정·상황·분위기를 읽어야 했고 적절한 타이밍에 나의 의견을 개진해야 하기도 했다.

연수주제, 연수지, 일정, 업무분장 등 하나부터 열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 나라돌봄팀의 계획이 세워졌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힘든 과정이었다. 그러나 연수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모두가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좋은 팀워크로 해외연수를 잘 마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회차별 연수모임에서 때로는 리더로, 관찰자로, 발표자로 역할을 해보았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배울 수 있었던 이 연수모임이 내겐 굉장히 뜻 깊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소망

독일 복지기관을 탐방하며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와 비슷한 전달 체계 복지기관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별한 서류나 절차 없이, 당사자의 전화 한통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이다. 담당자는 일종의 키맨(key man) 역할을 수행하고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프로그램들을 연결한다. 그리고 이 복지전달체계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공공(주)-민간기관이 함께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복지 선진지 독일에서 내가 몸 담고 있는 남양주시와 공통점을 찾으니 ‘우리가 들리지

않았구나'라는 안도감과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동시에 독일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상황에 맞게 접목해 남양주시가 발전하기를 소망한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로겠지만 특별히 사회복지에는 각 분야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 기관차원의 성과와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요 고객인 당사자, 그 한 사람(人間)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급자 중심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어느누구도 함부로 여김받지 않는 사회복지의 본질적 실천을 위해 각기관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나와 나래돌봄팀, 남양주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한다.

감사

개인적인 상황이 있어 온전한 9박 11일 일정을 함께하지 못하고 후발대 참여를 고려했다. 이런 나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선·후발대 방법을 고안해주시며 동행자를 허락해주었던 팀원들이 있었다. 나 하나로 인해 팀원들이 낯선 환경에서 신경써야하고 번거로움이 추가되는 상황이었다.

내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한 선택이 팀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인가, 나는 이번 연수에 열만큼의 마음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고민 끝에 이왕 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연수 이후의 마무리도 멋지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 결정을 돌이키게 되었다.

해외일정 조율단계에서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일정에 늦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나래돌봄 팀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더하여 바쁜 일상에 치여 있던 삶에서 잠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좀 더 큰 꿈의 상상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남양주시 복지재단 관계자분들, 사랑하는 남양주시 서부희망케어센터 센터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남부희망케어센터
팀장 박세규

해외연수 시작

이게 된다고?라는 물음과 함께 나래돌봄팀의 해외 연수 일정이 시작이 되었다.

팀과의 논의를 통해 계획을 하면서 내심 이대로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태산이었고, 나도 그렇지만 각자의 맡은 바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과, 점점 단계별로 준비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개별 리플렉션 메모를 통해 현재의 나 자신의 상태를 알고 위기를 깨닫고 하는 과정, 가끔 멀리서 상황을 봐야 하는 점이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색했지만 좋은 경험되었다. 피터와 많은 건 아니지만 나름 깊은 소통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번 발표를 통해 피터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나의 걱정과 다르게 실제로 되었다. 신기하기도 하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맡은 바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이번계획은 완벽은 아니지만 만족한다. 하지만 나보다 팀원의 노력에 의해 이번 연수가 빛을 발휘한 거 같다.

처음에 계획했던 일정이 변경되고, 통역사도 전날 변경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대로라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다행히도 운이 좋았는지 아님 팀원들이 재량이 좋았는지는 몰라도 위기 속에서 우왕좌왕되지 않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다는 모습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든다.

연수주제와 기관방문을 통해 알게 된 점

연수주제 대상자인 저소득 노인 포함 그 외 다양한 선진지 돌봄체계에 관심이 있었다. 많은 기관방문 중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기관과 비슷한 곳에 방문하게 되었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통역을 통해 전달과 전달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알기에 질문보다는 듣는 것에 집중을 했었다.

질문은 나와 비슷한 기관이고 같은 팀원인 우주와 복덩이가 많은 질문을 해준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어려웠지만 내가 일하는 기관인 희망케

어 같은 곳이 독일에서도 존재한다는 것과, 종사자의 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에 대해 신선한 충격이었었고 팀과의 화기에 하고 여유로운 모습에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독일엔 특화사업이 없다고?!

질문 중 기관의 특화 사업을 물었다, 특화 사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런 건 없고 왜 있어야 되냐는 말에 당황했다.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한다. 하지만 이곳 기관은 보여 주기보다 기본에 충실한 느낌이 들었다 이번 질문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것 외에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만약 해외연수가 없었다면 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아니 남양주에서도 우물 안 개구리인데 생각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특별한 기관방문

그리고 기관방문에 독일 교수님이 동행해 주셨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교수님 덕분인지 우리 팀은 기관 방문마다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 예로 미리 와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간식 등 준비한 모습을 보며 우리를 위해 무언가 준비를 했다는 자체로만 해도 대단한 생각이 든다. 워낙 독일인들이 친절에 무심하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가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과 다른 모습에 기분이 좋았다.

이건 우주의 역할과 우리 팀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는 노력으로 이루어 냈다는 것에 대해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이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마지막 소감

독일은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곳이다. 역사, 문화 그리고 사회복지도 더욱, 한국과 비교도 많이 되고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와 접목시켰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다. 독일 사회복지도 우리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비슷하다. 아마 모든 나라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다녀와 생각해 보면 한국에 와서야 이번 해외 연수가 꿈만 같았던 느낌이 든다. 꿈이라면 정말 행하지 못한 일들을 이뤄낸 것에 대한 느낌이 들었고 그에 자부심을 느꼈다. 해외연수 참여자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바비두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이미현

2023년의 큰 행운 - 우물 안 개구리에 벗어나다.

캡스톤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상상나래 해외연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아 이틀하고만 생활하는 저로써는 늘 “우물안 개구리”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상나래 해외연수 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사회복지 현장을 보고싶었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상상나래가 선정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상상나래 해외연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행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하는 캡스톤 프로젝트. 해외연수 기획과정

캡스톤 모임을 통해 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팀 모임을 통해 연수할 나라와 기관을 선정해야 했습니다. 팀원들과 의논을 하고 머리를 맞대어 “독일”을 선택하게 되었고, 우주가 중심으로 독일 방문기관을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팀원들도 해외연수를 위해 옆에서 많은 노력을 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중간중간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감정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또한 보기 좋았습니다. 해외연수 날짜는 다가오는데 기관 섭외가 잘 되지 않아 애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연수 가기전에 기관이 섭외되어 “독일”로 해외연수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던 해외연수

독일에 도착해서 렌트를 하면서 언어장벽에 부딪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노력으로 차량 렌트를 잘 하게 되었고,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관섭외에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팀원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고 흐뭇한 웃음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중간에 팀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 독일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셋째날 독일 공공기관에 방문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준비

한 사회복지 개념은 “인간중심”이라는 슬로건으로 느리지만 사람 중심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요양기관에 방문했 때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노래하며 간식을 먹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또한 고령화로 진입하면서 외로운 노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분들이 덜 외롭고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세대통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많은 생각이 드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곳을 여행하고 선진국을 공부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말을 이해는 했지만 공감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수를 다녀와서 그 말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독일 문화에 대한 신선함

독일은 IT산업이 다소 늦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금방 일을 하지만 독일은 아직도 우편을 이용해 업무를 본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느려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섬세함이 있었고 상대를 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또한 그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주는 것이 상대방이 가장 편안한지에 대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사회복지의 마인드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더 멀리 앞을 내다보는 사회복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소감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사회복지에서도 노인 복지에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수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팀원들의 배려로 함께 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과정 중 팀원들의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팀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정말 나는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앞으로 남양주의 멋진 사회복지를 위해이제는 우물안에서 살짝 나가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트리요양원 대표 장공자

해외연수 좋은 기획의 시작

사회복지와 장기요양의 모태가 되는 독일을 방문 목적지로 선택하여 라이프치히 시청의 노인의날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독일에서 가장 대표되는 개신교 재단법인 디아코니아와 카톨릭 재단법인 카리타스 그리고 베를린 연방정부의 장기요양부를 방문하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

특히 초고령사회 빈곤의 문제를 다루는 이번 연수의 주제와 함께 10년 넘게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 직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구인난과 장기요양을 포함한 사회적 돌봄의 문제, 그리고 향후 장기요양의 나아갈 방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라이프치히 노인의날 컨퍼런스

첫째 날 라이프치히 시청에서 주관하는 노인의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7,80대 노인들이 노년기 삶에 대한 강의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 이었다. 노인들을 위한 안내 부스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비롯하여 노인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대학교와 노인 문제 상담소등 노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을 홍보하며 노인들에게 자세히 상담해 주는 모습은 기념품을 나눠드리고 유명인사들의 줄지은 격려사와 초청 가수 및 공연 등으로 진행되는 남양주 노인의날 행사와 비교가 되었다. 치매 어르신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인의 체험활동인 Hands On Dementia 체험은 치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한 노력으로 보였다.

라이프치히 기관방문 - 디아코니 요양원과 카리타스 노인사무국에서 느낀 점

처음 기관 방문지는 독일의 대표적인 두 개의 법인 중 개신교법인인 디아코니아에서 운영하는 49인 시설인 세대의 집 마테 하우스(Martha-Haus) 요양원이었다. 많이 궁금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유치원과 요양원을 결합한 세대통합 케어홈이 무엇인

지? 우리 일행을 맞이한 순간부터 엄청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기관 및 자기에 대한 자랑을 마치신, 나보다 한 살 더 많은 시설장이 안내한 곳으로 들어갔다. 아마도 네 살, 다 첫살쯤 되어 보이는 인형 같은 아이들이, 수염이 덩수룩한 남자 선생님의 기타연주에 맞춰 어르신들 사이 사이에 앉아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언어의 장벽과 독일을 대표하는 요양시설이라는 시설장의 기에 눌러 잠시 경직되었던 온몸이 나도 모르게 무장해제 되었다. 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싶었다. 세대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 시설에는 친손녀와 친할머니도 있고, 이웃집 할머니와 이웃집 아이도 있다. 거실 한 가운데 걸려있는 예쁜 손녀와 할머니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액자가 눈길을 끌었다. 유치원 시절부터 내 조부모 그리고 이웃집의 몸이 불편한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돌봄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태도도 자연스럽게 획득된다.

그 일환으로 장애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을 학교나 유치원, 병원, 백화점 등이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곳에 짓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있다. 요양원이나 장애인 시설이 수도권 밖으로 외곽으로만 내몰리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너무도 다름에 놀라웠다. 나도 늙으면 몸이 불편해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서로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이 사회가 존경스러웠다.

반면,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 인력 10명 중 9명은 난민 이민자라고 한다. 이 당당한 시설장이 은퇴하는 7년 뒤에는 단 한 명의 독일인 돌봄 인력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제대로 된 돌봄이 가능할까? 연변 간병인이 갑질하고 있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이 생각났다.

오후에는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리타스 사회복지 사무국을 방문하고 사회복지사들을 만났다. 카리타스 사무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 시민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총망라한 사회복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독일의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순기능을 아주 촘촘하게 담당하고 있다.

베를린 기관방문

베를린 연방주의 과학,보건 및 장기요양부와 관계자들을 만났다. 장기요양부의 부서장인 Anja Ludwig 박사는 시니어 시민과 장기요양이 필요한 시민 및 가족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2년째 실천하고 있는데 그 중 말테져 힐프스다인트(Maltese Hilfsdienst) 사회복지 사무국은 노령기의 빈곤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외로움등 정서적인 문제등을 상담하고 연계하며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다.

지역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관계없이 18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전화 한 통화로 상담을 받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Piloting 서비스라고 해서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속하게 주호소 문제에 대한 도움과 지원을 하고 있다. 동시에 잠재적인 문제까지 찾아내어 미리 대처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노인 돌봄 문제를 철저히 이용자 중심으로 그리고 예방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돌봄을 받기 위한 이용자 스스로가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다 결국 해당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로, 높은 벽에 부딪쳐 결국 삶을 포기하거나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되었다.

마지막으로 노인과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을 전시하고 연구하는 스마트홈을 방문하였다. 신기하게 디지털 기술은 한국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다. 열쇠 꾸러미를 들고 옛 기구들을 수동으로 이용하는 모습은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더 떨어진 모습이었다. 이유를 물었다. 본인들도 인정 한다고 했다. 사실 독일의 디지털 수준은 유럽에서 최하위라고 했다.

보수적이고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는 노인들이 새로운 기술과 전문 용어를 익히는데 대한 어려움과,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적 어려움이 있기에 서두르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했다. 독일에는 맥도날드 외엔 키오스크도 없다고 한다. 매번 신문물 앞에서 주눅이 든 나로서는 한없이 부러웠다. 이 사회는 그 마음을 알아 주는구나 세심함과 배려가 마냥 부러웠다.

소감

말테저 사회복지 사무국 간담회에 참석했던 현장에서 뛰는 한 사회복지사의 말이 울림을 준다. Social Worker is Key!!



남양주시복지재단
주임 구자민

실망과 좌절, 그리고 극복과 성취

(기대) 해외연수 담당자로서의 시작

재단에서 올해 첫 해외연수 프로젝트가 생겼고 그 담당자가 내가 되었다. 첫 해외연수 인만큼 담당자인 나도 캡스톤 프로젝트와 해외연수를 경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참가자로서 참가하게 되었다.

참가자가 되었을 때 나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견학도 가고 다른 재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찾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캡스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나는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당자인 나에게 캡스톤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교육이었다. 자신이 주체적인 리더가 되어 내 의견도 표출하고 그 의견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캡스톤인데 나는 사업의 담당자이자 참가자이다 보니 양면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집중을 못하였다. 프로그램 집중하여 참여하기보다는 참가자와 담당자의 선택만을 반복할 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망) 시원치 않은 주제와 원하지 않는 나라의 선정

그런 과정에서 나는 의견 표출을 했지만, 사업이 잘 되어야 한다는 담당자 마음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의견 표출을 못했다. 결국 내가 원하지 않는 주제가 선정되었고 해외연수지마저 원하지 않았던 독일이 선정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나는 강하게 표출도 못했고,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할 때 담당자와 참가자의 역할만 계속 선택만 하여 제대로 된 설득도 못했다. 이런 내 모습에도 실망했고 심지어 원치 않는 주제와 나라가 선정되어 원하지 않는 해외연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나는 좌절했다.

(좌절과 극복) 너무나도 힘든 기관섭외

좌절했다고 난 포기할 순 없었다 왜냐면 난 참가자이기 전 이 사업의 담당자로서 참여했기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든 이 해외연수를 마무리 지어야 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다. 반대쪽 팀은 순탄하게 기관섭외가 잘 되었는데 우리는 기관섭외 메일이 전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만들어야 해서 한인회 연락, 다른 기관 메일 보내기, 지인에게 도움 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섭외가 되지 않아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매일매일 초초한 하루를 보냈다.

정말 해외연수가 취소되는 마감 직전에 최종적으로 기관 섭외를 마무리했고 한인회를 통해서 통역사도 구했다. 정말 마감 직전에 완성하여 간신히 갈 수 있게 되었고 실망과 좌절에서 그래도 해냈다는 기쁨이 있었다.

(성취) 내가 원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좋은 경험의 해외연수

그 이후로는 그래도 순탄하게 준비하여 우리는 독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원치 않는 나라에 독일이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가본 유럽은 너무 신비로웠다. 모든게 새로웠고 정말 다른 인종이 가득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나에게 큰 자산이 될만큼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원하지 않은 주제인 노인이었지만 노인 관련 기관방문을 하면서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다. 먼저, 독일의 신뢰에 대해서 배웠다. 흔히 무슨 잘못을 하면 '독일인은 안그래' 이런 말을 통역사분께서 종종하곤 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연수를 마무리 할때쯤 나는 그 의미를 알았다.

독일에는 노인이 어린이 통학을 도와주고 함께 놀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나는 한국인 마인드로 그 노인을 어떻게 신뢰하냐 범죄경력 조회서나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었는데 '그런게 왜 필요하냐'는 답변을 받았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신뢰가 없기에 부차적인 것들이 많아졌다고 느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정말 독일사람들은 정말 규범적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에 굉장히 충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신뢰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다음으로, 독일에 노인복지 제품은 모두 사용자 중심이다. 요양의 디지털화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관에 견학을 갔다. 거기 직원분은 한국은 굉장히 디지털 강국이기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잘되어 있을거라고 이야기 했다.

맞다. 모두 한국에 있었다. 하지만 한국 노인은 이런 스마트 시스템을 쓸 수 없다.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는 실제 노인이 쓸 수 있게끔 가격까지 고려해서 제품을 만들었다. 배터리 하나까지도 노인이 교체할 수 없으니 태양열을 활용하는지 정말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보고 그 이야기에 오히려 부끄러웠다. 생산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생산하는 이유에 대해 배운 시간이었고, 한국은 분명 디지털과 IT기기가 발달 되었지만 그것이 정말 접목될 수 있는 기술인지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독일 시스템에 대한 아쉬운 부분

이렇게 독일은 굉장히 배울 점이 많고 매력적인 나라였다. 하지만 몇가지 아쉬운 점도 존재했다. 먼저, 느린 업무처리 속도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로 인해 문서의 디지털화가 전혀 되지 않아 아직도 편지로 업무전달 및 소통을 한다고 들었다. 들었을 때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좋았지만 너무 아날로그적인 처리방법에 굉장히 놀랐다. 그리고 보통 편지를 주고 받기에 빠르면 1~2주, 늦으면 2달 이상 걸린다고 하였다. 당일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한국의 속도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여 매우 놀라웠고, 실제로 사무실을 갔을 때 사물함에 쌓여 있는 문서를 보고 그것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다음으로, 엄청나게 심각한 인력 부족이다. 독일은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되어있다보니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항목들로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높은 수입을 가지는 직업이 아니면 일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적고, 일을 해도 세금을 많이 가져가다보니 안하는 것과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어 일을 안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결과로 급여가 낮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낮은 처우의 직종들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고 우리가 오기 직전 시위를 통해 3% 정도의 임금 인상을 이루어냈지만, 여전히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했다.

해외연수 소감

그래서 나는 해외연수를 통해 성장했는가를 물어본다면 나는 YES! 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아닌 부분도 있다. 나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 부족함도 결국 나를 채워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라 생각한다. 나에게 이번 해외연수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성장 해야하는지 알려주는 발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독일 기관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을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타 기관 또는 지역과 다른 본 기관의 특화사업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모든 기관에 했고 그들은 모두 'NO'라고 대답했고 다른 기관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였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전반적인 독일을 보았을 때 이해가 되었다. 그들은 새롭고 특이한 사업이 아닌 기본에 충실하기에 타 기관이나 지역, 본 기관만의 특수한 사업에 관심이 없던 것이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매년 새로운 것을 내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정말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하기에 앞서 기본에 충실했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내가 해외연수 과정에서 실망과 좌절을 한 것도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고 기관에서 일할 때 나는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로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지 고민을 주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를 확실하게 만들어준 해외연수는 나를 분명히 성장시켰다.

참고문헌

1. 문헌자료

김필두(2013), 독일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책과 시사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태완 외(2020), 노인빈곤의 실태와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수지(2019), 독일 돌봄 인력의 현황과 정책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2. 통계자료

GHIP(국제의료정보포털) - OECD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https://www.medicalkorea.or.kr/ghip/index>

Startseite - Statistisches Bundesamt(독일의 인구통계학적 변화)

https://www.destatis.de/DE/Home/_inhalt.html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독일의 고령화 동향 및 대응)

<https://overseas.mofa.go.kr/de-frankfurt-ko/index.do>

Thanks To.

1. 기관섭외 및 현장동행(Program planning and assistance)
 - Prof. Dr. Andreas Hoff (Zittau/Görlitz University, Fakultät Sozialwissenschaften)
 - 박광현(Interpreter, Johannes-Gutenberg-Universität Mainz, 의과대학 재학중)
 - 친애하는 이유라 선배님

2. 라이프치히시청 사회복지국(The City of Leipzig)
 - Kerstin Motzer(M.A.)
(the City of Leipzig, Senior Officer for Senior Citizens and Handicapped People)
 - Social Workers at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3. 디아코니 요양원(Pflegeheim Marthahaus)
 - Heike Weimert (Heim-und Pflegedienstleiterin)

4. 카리타스 노인사무소(Senior Citizens Advice Bureau)
 - Grit Riethmüller(Fachbereichsleiterin Kranken-, Senioren- und Behindertenhilfe)
 - 라이프치히 카리타스 노인위원회 일동

5. 베를린 연방정부(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of the Federal State of Berlin)
 - Dr. Anja Ludwig(Head of Unit for Long-Term Care)

6. 노인 방문서비스 사무소(Malteser Hilfsdienst)
 - Sandra(Stange & Malteser Hilfsdienst's social workers)

7. 스마트홈(Smart home)
 - Simon Blaschke(Leben-Pflege-Digital Pflege 4.0, Projektleitung)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상상나라
2023년 1기 'Oh!벤저스'

1 서론

1. 연수개요
2. 연수목적 및 목표
3. 연수일정
4. 연수국가 특성
5. 연수지역 특성

01

서론

1

연수개요

- 연수주제 : 지체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¹⁾ 환경조성 정책과 선진사례 연구
- 연수기간 : 2023. 10. 2.(월) ~ 10. 11.(수) / 8박 10일
- 연수대상
 - 팀명칭 : Oh!벤져스
 - 의 미 : 영화 「어벤져스」 처럼 각 분야의 복지종사자들이 팀을 결성하여 ‘해외연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자’라는 의미

소 속	직 급	성 명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센터장	이정연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김미현
늘사랑실버케어센터	시설장	장명숙
남양주시니어클럽	실장	장규원
남양주시복지재단	대리	김은혜

- 연수내용
 - 독일의 선진 배리어프리 구축 사례 견학 및 담당자 인터뷰
 - 배리어프리 주요 정책적 성과 사례 답습 및 우수기관 방문, 인터뷰
 -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인식 수준 고찰 및 독일의 장애인 문화탐방
- 방문기관
 - 마르부르크시 사회복지청
 - 레벤스hil페 뮌헨 장애인시설
 - 뮌헨 페니히파라데 장애인작업장
 - 뮌헨시청 장애인자문위원회

1) 배리어프리(Barrier-free) :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제거하는 운동 및 정책을 말한다. 영문을 직역하자면 장벽(barrier)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의미이다.

2 연수목적 및 목표

가 연수목적

- 독일의 장애인에게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는 선진사례와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함.
- 장애인 이동성이 사회참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배리어프리 환경조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배우고자 함.
- 이를 통해 남양주시의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배리어프리 정책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 방향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을 파악하여 향후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수목표

- 독일 대중교통의 배리어프리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과 정책사례 연구
- 장애인 이동성이 사회참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파악
- 독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 파악

3 연수일정

가 사전준비 일정

일정	연수준비	학습내용
7월 3주	- 연수기관 리스트 및 컨택 메일 작성	- 연수 목적 및 목표 명확화
7월 4주	- 연수팀 내 역할분담 및 기관컨택	- 해외연수 기관 조사 및 학습
8월 1주	- 해외연수 일정 조율	- 연수국가 문화 및 관습의 이해
8월 2주	- 해외연수 진행사항 점검	- 해외 사례 및 관련 기사 공유
8월 3주	- 해외연수 세부 일정 확정	- 국내·외 배리어프리 정책 조사

나 세부 연수일정

일 정	지 역	시 간	주 요 일 정
10.2(월) [1일차]	인 천 프랑크푸르트	12:20 18:30	· 인천국제공항 출발 · 인천 → 프랑크푸르트
10.3(화) [2일차]	프랑크푸르트	14:00 17:00	· 프랑크푸르트 교통시설 등 현장 시찰 · 해외연수 추진 일정 사전점검
10.4(수) [3일차]	마르부르크	08:00 10:00 13:00 15:00	· 프랑크푸르트 → 마르부르크 이동 · 마르부르크 사회복지청 방문 및 인터뷰 · 마르부르크 대학교 투어 · 마르부르크 → 뮌헨 숙소 이동
10.5(목) [4일차]	뮌헨	10:00 14:00	· 레벤스hil페 장애인 주거공동체 방문 (서면 인터뷰 진행) · 페니히파라데 장애인작업장 방문 및 인터뷰
10.6(금) [5일차]	뮌헨	10:00 14:00	· 뮌헨 장애인자문위원회 방문 및 인터뷰 · 뮌헨 장애 친화적 시설 분석 및 순행
10.7(토) [6일차]	퓌센	10:00 14:00	· 뮌헨 → 추크슈피체 · 문화탐방 및 팀 네트워킹
10.8(일) [7일차]	뮌헨	12:00 18:00	· 뮌헨 교통 및 건축물 내 배리어프리 현장 시찰 · 리뷰 및 워크숍(현지 장애인 시설 시사점)
10.9(월) [8일차]	뮌헨	10:00 18:00	· 현지 문화탐방 및 팀 네트워킹(뮌헨) · 해외연수 종합점검 및 리뷰
10.10(화) [9일차]	뮌헨	15:55	· 뮌헨 → 인천
10.11(수) [10일차]	인천	09:55	· 인천공항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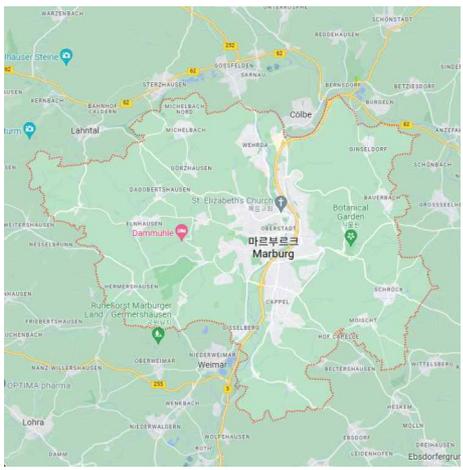
4 연수국가 특성

가 연수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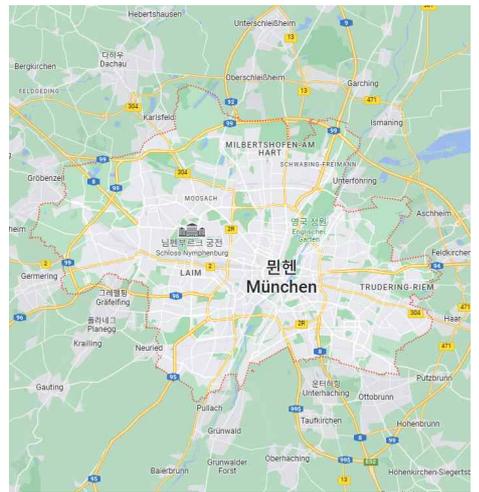
연수국가 소개	위치(사진)
<p> 독일(German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언어 : 독일어 ○ 수도 : 베를린 (Berlin) ○ 면적 : 357,022km² (대한민국의 3.5배) ○ 인구 : 84,358,845명 ○ 기후 : 해양성 기후의 따뜻하고 온난한 서부 지역과 대륙성 기후의 북서부와 남동부 지역은 서부보다 기온이 낮은 편임 ○ 연수지역 : 뮌헨(바이에른주), 마르부르크(헤센주) 	 <p><독일 주요도시></p>
<p><연수지역 선정 사유></p> <p>2002년 독일 연방 차원에서 「장애인의 동등취급에 관한 법률(BGG)」 제정되었으며, 16개 주에서 각각 의회 의결을 통해 2005년 바덴뷔르템부르크주를 마지막으로 모든 주에서 장애인평등법이 제정되었음. <u>장애인이 외부의 도움 없이 건축물, 교통, 의사소통 수단 등 그 외의 생활 시설도 접근이 쉽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함. 이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배리어프리 정책 및 선진 사례를 학습하고자 함.</u></p> <p>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Barrier(장벽, 장애물)」 과 「Free(자유로운, 개방된, 속박없는)」 의 합성어로 「장벽(장애물)없는」 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활환경, 제도, 정책 및 정보 분야 등 다양한 방면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미로 사용됨.</p> <p>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보장과 더불어 포괄적 의미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생활환경의 조성과 정비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교통약자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편의증진법”）」 에 기초하여 교통(보행)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 및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장벽없는 환경조성을 의미함.</p>	

5 연수지역 특성

가 마르부르크

연수도시	지도
<p>마르부르크 (Marbur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 : 헤센주 ○ 면 적 : 123.9km² ○ 인 구 : 77,845명 ○ 도시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종교개혁의 중심지, 개신교 도시 · 최초의 개신교 대학인 마르부르크 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도시로 발전 · 그림형제가 대학시절을 보낸 곳으로 동화 가도의 도시이며, 관광명소로도 유명함 	
<p><방문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4.(수) : 마르부르크 복지청 인터뷰 및 마르부르크 대학교 투어 	

나 뮌헨

연수도시	지도
<p>뮌헨 (München, Muni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 : 바이에른주 ○ 면 적 : 310.7km² ○ 인 구 : 1,512,491명 ○ 도시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바이에른주의 최대도시이자 주도시 · 안정적인 경제와 사회제도, 낮은 범죄율로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꼽힘 · 세계적인 축제 중 하나인 옥토버페스트가 열리는 장소로 유명함 	
<p><방문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5.(목) : 레벤스힐페 공동체 방문 및 페니히파라데 장애인작업장 인터뷰 · 10.6.(금) : 뮌헨 장애인자문위원회 인터뷰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상상나라

2023년 1기 'Oh!벤저스'



선행연구

1. 장애의 정의와 이념
2. 한국의 장애인 현황 및 이동권
3.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4.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현황
5. 장애인의 이동성과 사회참여와의 연관성
6. 통합교육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

02

선행연구

1

장애의 정의와 이념

가 독일의 장애에 대한 정의와 이념

□ 정의

- 1986년 ‘중증장애인법’ 독일에서는 장애를 일반적으로 어떠한 건강문제로 인하여 기능상의 제약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함.
- 1986년 직업수행능력의 저하(MDE)에서 장애의 정도(Gdb)라는 개념으로 변경. "생업 능력상실률(MDE)을 기준으로 해서 MDE가 30%이상인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고, 50%이상인 사람을 중증 장애인이라 하며, 80%이상인 경우 최종도 장애인이라 함.

□ 이념

- 독일의 장애인 복지 기본 이념은 정상화와 통합화에 있음.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고도 산업사회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소득 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음. "궁극의 원리"(장애의 원인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의미), "정상화의 원리", "기회균등"(기회균등의 문제는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 그 자체에서부터 요구된다.)이 라고 할 수 있음.

나 한국의 장애에 대한 정의와 이념

□ 정의

- 1995년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함.
- 1999년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이라고 정의함.

□ 이념

-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근거 법인 「장애인복지법」을 포괄하여 직업과 교육, 사회환경 등의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은 통합적 구조의 기본법 성격으로 개정하여 종합적인 복지정책 시행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실현하려고 함.

구분	한국	독일	비고
장애인복지	1950년 (6.25를기점으로 시행)	1919년 장애인고용의무화로 시행	독일이 31년 먼저시행
장애인고용법	1991년1월1일 장애인고용촉진법	1920년에 중증상해자고용법 1923년에 중증장애인고용법 1969년에 장애인고용촉진법	독일이 71년 먼저시행

2 한국의 장애인 현황 및 이동권

가 한국 장애인 등록현황

- 등록장애인 수 : 265만 3,000명(전년 대비 8,000명 ↑)
 - 전체 인구 대비 5.2% 수준. 15개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 장애(44.3%), 다음으로 청각장애(16%), 시각장애 9.5%, 뇌병변장애(9.3%), 지적장애(8.5%) 순임.



나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

- 장애인 기본법
 - 장애로 인하여 처하게 되는 불리함을 극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통약자법」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권이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인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 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3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지하철 및 철도 기준 비교)

가 독일의 이동권 예산

□ 독일 배리어프리 교통시설 관련 예산

- 2021년 기준 독일에는 기차역 약 5400개, 승강장 약 9300개가 존재. 승차 정보 전광판이 약 6800개, 엘리베이터가 약 2500개, 에스컬레이터가 약 1000개가 설치되어 있음.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철도 배리어프리 사업에 약 47억 유로(약 6조 3146억 원)를 투자했음.
- 2022년에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투자 지원으로 약 18억 유로(약 2조 4184억 원)를 들여 독일 전역의 기차역에서 배리어프리를 포함한 현대화 작업을 진행했음.
- 2023년부터 2030년까지 156억 유로(20조 9,591억 원)가 투자될 예정임.

□ 베를린 수도 배리어프리 관련 예산

- 베를린의 경우 2021년 기준 버스, 전철, 트램 차량을 모두 배리어프리 환경을 갖추.
- 추가적인 배리어프리 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500만 유로(약 67억 원)를 더 사용했음.

나 한국의 이동권 예산

□ 한국 배리어프리 교통시설 관련 예산

- 2023년 정부예산을 결정하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237억 원을 편성했음. 이것은 2022년 인구 74만 명의 프랑크푸르트시에서 독일 철도 서부역 한 개역의 배리어프리 확장을 위해 편성한 예산보다 더 적은 금액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요구한 증액안의 0.8%에 불과함.)
- 현재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과 저상버스 도입은 30% 미만으로 저조한 상태임.

<OECD 주요국 장애인 예산 비율>



4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현황**

가 **독일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현황**

- 1970년대 장애인운동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장애인 정책에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1976년 독일에서 세계 최초 저상버스 도입)
- 1990년 7월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ADA) 제정, 1993년 12월 유엔(UN)의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규칙' 제정과 같은 세계적인 분위기가 통일 독일의 개정 헌법(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반영되었음.
- 2002년 4월 연방 차원에서 '장애인의 동등취급에 관한 법률(BGG)'이 제정되었으며, 16개 주에서 각각 의회 의결을 통해 모든 주에서 장애인평등법이 제정되었음.

<장애인평등법>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법과 제도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

- 2013년 독일은 여객자동차운수법(PBefG)을 개정하면서 거동에 제한이 있거나, 모든 유형의 신체 및 감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대중교통을 배리어프리로 만들도록 규정했음.
- 독일 시외버스 회사 중 가장 규모가 가장 큰 Flixbus는 홈페이지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의 티켓 구매에 대한 자세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36시간 전에 신청하면 여행을 돕는 이동 도우미를 배정받을 수 있음.
- 지자체 대중교통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 베를린의 경우 2021년 기준 버스, 전철, 트램 차량을 모두 배리어프리로 갖추고 있음.
- 독일의 장애인 단체들은 지금도 '완전한 이동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2022년 5월 5일 장애인 평등을 위한 유럽 항의의 날(European Equality Day of Protes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에도 베를린을 비롯한 독일 전역에서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비롯해 장애인 평등권을 외치며 거리로 나오고 있음.

나 **한국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현황**

- 2001년 오이도역 지하철에서 휠체어사용 노부부가 리프트 추락 사망 사건 이후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전신인 장애인이동권 연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철 역사 내 승강기 전면 설치 및 수도권 내 정상 버스 전면 도입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음.
- 1999년 이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수도권 전철 리프트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총 5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정부 또는 지자체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설

치하고 저상버스나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 약속하였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2001년도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2023년 최근까지 지하철역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수도권 지하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사고일지를 공개하고, 서울시는 전 역사에 대한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약속했지만, 서울 시내엔 아직 21곳의 역사가 승강기 미설치 지역으로 남아 있음. 2022년부터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 상의 승강기 설치 시점을 2024년까지 다시 미뤄놓았음.

다 남양주시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 현황

- 남양주시가 올해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해 희망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차량 증차 예정이지만, 저상버스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약 7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현재 59대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을 62대로 증설하고, 운전원도 차량당 1.2명까지 확보할 예정임. 그러나 장애인에게 유용한 교통수단인 저상버스 도입률은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음.
- 2023년 기준 시에 등록된 시내·마을버스는 900대로 이 중 저상버스는 4.2%인 38대로 집계되며, 시에 등록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에 비해 저상버스 보급률이 매우 낮은 편임.

5

장애인의 이동성과 사회참여와의 연관성

가 독일 장애인의 이동성과 사회참여와의 연관성

- 독일의 저상버스는 승·하차 시 차체가 기울어져 버스와 정류장 사이에 단차가 없어지도록 설계되어 휠체어 이용자·이동용 보조가·유모차 승객들이 불편함 없이 탑승할 수 있음.
- 버스 바닥에는 이들 이용자를 위한 표시가 되어있어 승객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도 이동해야 하고, 혼자 승·하차가 힘든 휠체어 이용자는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기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독일의 마르부르크시는 콜택시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비용부담은 시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통합지원에 관심이 있어서 마르부르크시만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임. 모든 택시 운전사도 버스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이용 승객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음.
-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시 마리엔광장 근처 백화점에서 만난 지체장애인은 별다른 불편함 없이 에스컬레이터도 혼자 탑승하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평등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독일 사회구성원들은 장애인을 사회에서 분리해야 할 편견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이며 단지 도움이 필요한 배려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
- 독일 뮌헨 도시에서 지체장애인을 쉽게 만날 수 있었으며,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나 한국 장애인의 이동성과 사회참여와의 연관성

- ‘지체장애인의 이동성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로 지체장애인의 개인 이동 요인 중 자가운전 여부는 사회참여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증지체장애인의 경우 운전엔 필요한 보조장치 구매나 차량 개조 비용부담이 높기때문에 자가운전은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가운전은 사회참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 이동 요인 중 하나임.
- 지체장애인의 이동 환경 요인 중 저상버스 보급률은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은 비효율적인 운영 시스템과 승하차 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저상버스가 유용한 교통수단이라고 인식하지 않음.
-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 리프트 작동 미숙, 승하차 구역을 벗어난 정차, 탑승 시 운전기사의 불친절한 태도, 시민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저상버스 이용을 어렵게 하는 원인임.
- 인식과 태도의 문제에서도 저상버스 도입 취지에 걸맞은 운영 시스템 및 메뉴얼 구축과 인식개선을 위한 종사자 캠페인·교육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장애 친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동체 인식개선 활동, 모니터링 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는 지역에서도 장애인 수가 더 적은 도시라고 해도 실제 지역의 면적이 넓은 경우 평균 이동 거리가 멀고, 그에 따라 이용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음. 장애인 콜택시 도입 기준을 장애 인구로 기준하기 보다는 지역의 지리적·공간적 특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 지원은 16개 지자체에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음. 정책적 지원이 각 지역에 동일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이동 요인은 무엇이며, 이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이동 요인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를 고려하여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임.
-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는 교육권과 노동권과도 맞닿아 있음.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개입 전략으로 이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성이 증진될 때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 수준도 향상됨.

6 통합교육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

가 독일의 통합교육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

- 독일은 어릴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부하면서 비장애인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됨. 교육이 진행되면서 아이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장애 학생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주고 배려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임.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함.
- 독일의 통합교육은 공공과 민간은 서로 다른 정책으로 운영되는데, 각각의 장점이 있음. 공공은 통합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했고, 민간도 중요성을 인식하여 통합교육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음.

- 통합교육은 교원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전문인력 양성은 재정이 관건이기에 공공은 당연히 인력지원이 되고 있지만, 민간은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 독일의 사회문제 중 교사 부족을 들 수 있어서 모든 장애아동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것은 독일의 교사 연수 과정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연수가 교사들의 선택이라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처럼 한국과 마찬가지로 통합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남.
-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연수 및 대학과정에서 확대되었지만, 통합교육에 대한 연수가 교사들의 선택이라는 점에 아쉬운 부분이라서 통합교육은 독일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개선이 필요한 교육과정임.
- 독일 사회도 2009년 UN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위한 포용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일반 학교의 시설 개선과 교육 인력 증원을 위한 재정문제와 교육 인력 확보가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통합을 이루는데 저해요인이 있음.
- 장애인의 이동성 관련해서 사회적인 인식수준을 살펴보면, 저상버스 탑승시 혼자 승하차가 힘든 휠체어 이용자는 버스정류장에서 기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버스에는 수동식 발판이 설치되어 있어 기사가 직접 발판을 내려 휠체어 이용자의 승하차를 도운 다음 버스를 출발시키고 있으며, 버스 운전자는 장애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기본적으로 버스 승객들도 장애인들을 위해 램프를 펴주는 시간이 소요되어도 불만을 얘기하는 승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하고는 차이가 있음. 예외적으로 본인의 사정에 따라 급한 용무가 있을 때는 탑승했던 버스에서 하차하여 다른 버스로 환승하는 경우가 있음.
- 독일의 이런 사회적인 인식의 바탕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음. 장애인 학살을 일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장애인 교육과 복지를 현저하게 확대하였음. 장애로 인해 어떤 차별도 받지 말아야 할 것을 1949년 제정한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연방헌법)으로 규정하며, 독일 사회는 장애인을 자신의 삶에 피해를 주는 존재로 인식하지 않음. 이런 기본법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동등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고 함께 사는데 필요한 지원과 배려를 하고 있음.
- 마르부르크 시청 인터뷰에서 의하면, 독일의 정치가 장애인들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마르부르크에서는 장애인 인권문제와 그들의 권리에 대한 높은 인식이 있음. 이런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선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높아질 수 있고, 도로교통국에서도 도로 교통 및 공공장소에서의 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한 감각을 키우기 위해 장애체험 등을 실시한다고 함.
- 대도시 뮌헨시 시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독일 사회의 평등한 일원으로 보는 시민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배제, 차별, 적대적인 대우를 경험하고 있음. 뮌헨시청의 액션플랜을 통해서 많은 포용적인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한국의 통합교육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

- 한국의 특수교육은 크게 두 가지 형태임.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전문가들은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지내는 시기가 빠를수록 장애아동의 사회성발달에 좋고, 비장애 아동의 인식개선 효과가 크다고 말하고 있음.
- 교육부에 따르면 통합교육을 받는 비율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일선에선 특수교사의 업무 가중, 일반교사의 비협조 등의 문제로 통합교육이 흔들리고 있음.
-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이 필수이지만, 일반교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 통합교육의 어려움이 있음. 전문가들은 일반교사 양성과정이 미흡하여 사전에 교사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일반교사의 연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 장애인의 이동성 관련해서 인식수준을 살펴보면, 대중교통 이용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운송업자 및 운전원들의 인식과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포함될 수 있음. 혼잡한 시간대에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은 운전원과 비장애인 승객들의 인식과 반응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음.
- 운송사업자와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와 인터뷰²⁾에서 저상버스는 고령인, 장애인 및 유모차를 가진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좋은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혼잡한 시간대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모순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음.
- 이것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환경에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어서 통합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장애인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설문지 및 인터뷰



기관방문

- 1-1. 마르부르크시 사회복지청
- 1-2. 마르부르크시 사회복지청 인터뷰

- 2-1. 레벤스hil페 뮌헨 장애인시설
- 2-2. 레벤스hil페 뮌헨 장애인시설 인터뷰

- 3-1. 페니히파라데 장애인작업장
- 3-2. 페니히파라데 장애인작업장 인터뷰

- 4-1. 뮌헨시청 장애인자문위원회
- 4-2. 뮌헨시청 장애인자문위원회 인터뷰

03

기관방문

1-1

마르부르크시 사회복지청

구 분	내 용
기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르부르크시 사회복지청은 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그들의 주요 역할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이나 어려움을 겪는 개인, 가정, 그리고 단체들을 지원하며, 특히,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동등한 참여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 ○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지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나 개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절차를 도와줌. • 장애인 지원: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자립성을 촉진하며,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배리어프리 시설,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을 지원함. • 노인 지원: 노인들에게 건강, 취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령화 사회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함. •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상담, 보호시설 등을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 • 아동 및 가족 지원: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보호와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며, 가정에서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함. ○ 주소 : Frauenbergstraße 35, 35039 Marburg ○ 홈페이지 : www.marburg.de
방문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르부르크시가 다른 도시보다 일찍 장벽없는 도시로 발전하게 함. - 2002년 ‘마르부르크의 배리어프리’결의(안)가 채택됨. - 결의안 채택 후 마르부르크시 행정부가 지속해서 장벽을 없애기 위해 주기적으로 논의를 위한 회의가 진행됨. →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실천 과정 탐구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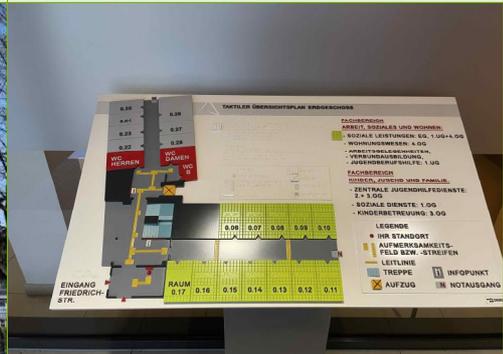
기관 담당자 인터뷰



마르부르크 사회복지청 단체 사진



마르부르크 사회복지청 전경



시각장애인을 위한 입체 안내도



마르부르크 대학 내 장애 학생을 위한 스크린 리더기, 점자 프린터



장애인을 위한 버스정류장 음향신호기



마르부르크 대학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록



마르부르크 대학 내 장애 학생을 위한 반자동문 버튼

가 주요질문

- 마르부르크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는 무엇이며, 장애인의 배리어프리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은 잘 갖추어져 있는가?
- 마르부르크의 장애인 정책의 주요 목표는 모든 사람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구분 없이 사회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함.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것은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사회법12번(SGB XII)에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 통합지원(ngliederungshilfe)에 대한 내용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고, 최대한 자기결정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및 서비스임.
 - 장애인의 개별적이고, 개인화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존의 국가 법률 (SGB IX, 사회통합 지원법)을 통해 달성됨.
 - 마르부르크의 배리어프리 지원사항
 -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공공기관 출입이 가능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시스템, 주의 표시 지점, 촉각 모델, 음성 안내 엘리베이터, 점자 키 등이 있음.
 - 학습장애인을 위한 간단한 언어 지원과 공공기관 및 행사에서 수화 통역사 제공함.
 - 저상버스 및 버스정류장의 경우 점차적으로 장애인용으로 개선되고 있음, 향후 모든 정류장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버스에 승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신호등 음성 안내, 새로운 신호등은 버튼 아래에 있는 요청 버튼이 있으며, 이전의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에 항상 소리가 나도록 설정되어 있음.
 - 인터넷에서의 장애물 신고 기능하며, 마르부르크의 웹사이트에서 건축물 또는 웹사이트관련 장애물을 신고할 수 있음.
 - 장애인을 위한 웹사이트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음.
- 마르부르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모든 장애인의 가장 긴급한 필요는 자립적인 삶과 동등한 사회참여가 중요함.
 -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임.
 - 다양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함.(대중교통시스템 및 공공건물의 배리어프리 등)
- 마르부르크시의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욕구가 잘 반영되는가?
- 마르부르크 정치인들은 장애인 문제를 고려하는 데 매우 신중함. 시의회는 이미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결정했음.(2005년에 시행된 주요 평등법을 마르부르크에 적용 등)

나 **배리어프리 관련 복지정책에 관한 질문**

- 독일에서는 장애인의 대중교통의 배리어프리 실천을 위해 어떤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 공공 교통수단의 접근성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류장 안내방송과 시각적으로 환경(주위환경과 대조)이 조성됨.
 -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저상버스 이용이 다소 용이함.
 -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은 적절한 높이로 되어 있음.
 - 도심 지역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은 이미 접근성을 확보한 상태이며, 매년 추가적인 정류장이 접근성을 갖추도록 개조되고 있음. 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를 포함하며, 버스 승차 위치를 알려주는 경로가 포함되어 시각장애인들이 어느 곳에서든 버스에 탑승할지 알 수 있도록 함.
 - 도심 지역의 모든 버스 정류장에는 화면에 표시된 출발시간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음.
 - 버스운전자들은 장애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각장애인이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노선을 알려주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램프를 펴주는 등의 도움을 제공함.
- 독일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가요? (이동편의를 위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마르부르크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서비스를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함, 공공건물에서 모두에게 배리어프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함.
 - 건물에 엘리베이터는 충분한지, 건물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자동문 설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경사로는 없는지, 시각장애인들에게 각별한 안내시스템(건물 입구에 안내도-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안내판)이 설치됨. 입체적인 구성된 안내도가 시각장애인에게 중앙문이나 엘리베이터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안내함.
 - 엘리베이터 자체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 안내 버튼이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위치하는지 문자 안내도 지원됨. 버스정류장에는 저상버스가 있어서 휠체어 이용자가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버스에 승하차할 수 있음. 버스정류장에는 어떤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언제 버스가 오는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으로 안내되고 있음.
 - 마르부르크시 홈페이지에는 '배리어신청'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음. 장애인이 약속장소나 가고자 하는 곳이 있을 때 인터넷에서 신청하여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음. 가는 길에 장애물이 많아 길이 험난하다면, 다른 대체 길을 찾아주며, 때로는 그 길을 동행할 사람을 찾아주기도 함.

- 홈페이지에도 쉬운 언어로 안내를 해서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내될 수 있게 되어 있음. 청각장애인이거나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도 지원하고 있고, 공공기관 행사 및 언론 일정에도 수화통역이 동반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은 독일 시각장애인연구원에 의해 제공되는 이동훈련을 받아 마르부르크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음. 이러한 서비스는 사회통합지원기관(사회지원금의 목적으로 장애인을 돕기 위한 지원금)에서 지원됨.

다 마르부르크 교통시스템 관련 질문

< 버스시스템 >

-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로 이루어졌으며, 버스정류장의 승하차 편리성 및 쉬운 언어로 안내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버스 승하차를 위해 운전사의 교육이 이루어짐.
- 버스 앞쪽에는 노약자를 위한 좌석이 있으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좌석이 앞쪽에 있고, 그들이 하차 시 버튼을 누르면 운전사가 도와줄 수 있게 되어있음.
- 저상버스의 배차 간격은 10분 미만이며, 버스 1대를 놓쳤다고 해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며, 노선에 따라서 2분~5분 정도로 대기시간이 소요됨.

< 택시시스템 >

- 모든 택시 운영사는 특별한 택시가 있음. 휠체어를 실거나,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도 있으며, 운전자 교육도 이루어짐.
- 시에서 비용은 100% 지원하며, 개인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소액임. 시에서의 비용부담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통합지원에 관심이 있어서 마르부르크만 자발적으로 지원함.
- 마르부르크는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 시각장애인 이동시스템 >

- 블리스타(시각장애인훈련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동훈련은 시에서 지원함.
- 대중교통과 함께 도시 상점에서도 배리어프리 시스템에 필요한 훈련이 진행됨.

□ 마르부르크시 행정부의 어떤 노력으로 인하여 다른 도시보다 대중교통의 배리어프리 실천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독일 내에는 전국적인 지침이 있어서 많은 독일의 도시들이 이제는 접근성 있는 공공 교통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마르부르크가 다른 도시보다 선도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도시보다 먼저 시작되었기에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음.
- 유엔 장애인권리 협약의 서명으로 독일 내에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 중 하나는 독일 내의 버스 정류장이 언제까지 접근성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임.

- 마르부르크시의 차별화된 장애인 이동권관련 배리어프리의 정책적 특성이 있다면 무엇이든 생각하십니까?
- 독일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큰 주제이며, 법적 규정이 있으므로 마르부르크의 공공 교통시스템은 다른 독일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잘 갖추어져 있음.
 - 그러나, 마르부르크는 심한 보행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장애인 이동서비스를 시 보조금으로 제공하는 점이 독일 도시 중 예외적인 사례임.

라 장애인 복지욕구 관련 질문

- 장애인 욕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
- 1997년에는 마르부르크시에서 장애자문위원회를 설립했음. 이 위원회는 마르부르크시와 정치 당국에 의해 장애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참여하게 되며, 장애인들을 제외하고 결정되지 않도록 함.
 - 장애인자문위원회는 16명의 선출된 장애인과 도시 의회의 정당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됨. 위원회에는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총리부원, 복지단체 대표자 및 사회 사무국 대표가 속해 있음.
 - 마르부르크에서는 장애인자문위원회가 확립되었으며, 위원회가 제안한 많은 제안 사항을 정치 당국이 받아들이고, 장애인 문제에 관한 결정 또한 장애인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짐.
- 장애인 정책에 장애인의 욕구가 잘 반영되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현되고 있는가?
- 장애인자문위원회와 밀접하게 일하고 있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자문위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이 요구들은 시의회로 들어가서 시급 순위로 결정되고, 특히 시의 예산책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예 시 >

이웃 중에 한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 이동이 어려워 외출이 어려울 때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논의를 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르부르크는 장애인 이동 수단을 특별하게 마련하고자 함.

장애인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에 관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됨. 그들이 이미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마르부르크는 그들에게 이동의 편의성을 최대한 제공하고 있음.

이 무료 교통수단 지원도 장애인자문위원의 요청사항으로 실행된 것임.

□ 장애인복지 욕구 및 문제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마르부르크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참여하는 것이며, 모든 분야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장애인 당사자는 자신의 문제를 전달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우리의 목표는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

마 장애인 인권과 시민의식에 관한 질문

□ 마르부르크시 공공과 지역주민의 장애인 인권의식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 마르부르크에서는 장애인 인권문제와 그들의 권리에 대한 높은 인식이 있음. 이는 부분적으로 마르부르크 도시풍경에서도 두드러지게 존재하고, 다른 측면에서 정치가 장애인들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임.

□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시민의식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높아질 수 있음. 각각의 장애에 따라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직접 경험하고 느끼게끔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학교 수업이나 다른 활동에서 눈을 감고 지팡이로 걷기연습, 휠체어를 타고 시내를 다녀보는 등의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
- 마르부르크 도로교통국에서도 도로 교통 및 공공장소에서의 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한 감각을 키우기 위해 이러한 연습을 시행한 경험이 있음. 이러한 연습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 비장애인도 장애인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음.

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환경 관련 질문

□ 독일의 통합교육 철학은 어떠한 배경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 유럽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법이 국제적으로, 나라별로 규정되어 있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가 있다고 인식되고 있음.
- 독일의 평등법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되어 있음. 출신·종교·신체장애·정신장애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이런 근본적인 법에서부터 발전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위해 정책이 사회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어려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독일에는 통합학교가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부하면서 비장애인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됨.
-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란 인식을 심어주게 됨. 이 통합학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함.

-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접하게 하도록 통합유치원이 있고, 이런 통합유치원이 점점 늘고 있음.
- 독일의 유치원은 공공과 사립의 2가지 운영형태가 있음. 공공과 사립은 서로 다른 정책으로 운영되는데 각각 장점이 있고, 공공은 통합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했고, 사립도 중요성을 인식하여 통합교육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음.
- 통합교육은 지원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전문인력양성은 재정이 관건임. 공공은 당연히 이런 인력지원이 되고 있고, 사립은 이런 인력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이 어디까지 지원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음.

<마르부르크 담당자>

여기 온 지 2년반 되었지만, 여기 마르부르크 시민들이 굉장히 주의 깊다고 느꼈음.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정말 좋은 지원을 받고 있음에 놀라고 있음. 마르부르크는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2-1

레벤스힐페 뮌헨 장애인시설

구 분	내 용
<p>기관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자녀들의 자립을 위해 부모들의 요구로 1950년에 만들어진 복지단체로 독일 전역에 지부가 있음. • 레벤스힐페 뮌헨은 바이에른주 뮌헨에 있는 장애인시설로 장애인들이 삶 향상과 그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통합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둬م. • 유아에서 노년까지 전 연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의 생계를 위한 직업 교육프로그램과 성인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거주 시설을 제공함. ○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맞춤형 학제를 위한 조기 중재 • 장애인을 위한 개방형 작업장과 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가족상담) • 성인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주거 시설 제공 • 외부상담 및 치료센터와 협력 ○ 주소 : Lebenshilfe München St.-Quirin-Str. 13a 81549 München ○ 홈페이지 : https://www.lebenshilfe-muenchen.de/
<p>방문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에서 가장 큰 복지단체 중 하나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장벽 없는 삶을 엿볼 수 있음. -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상담과 치료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심리적 장벽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p>관련 사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레벤스힐페 단체사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레벤스힐페 주거공동체 전경</p> </div> </div>

2-2 레벤스힐페 뮌헨 장애인시설 인터뷰

가 주요질문

- 주거공동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자기 결정권을 갖고 살며, 사회의 일원이 되고, 필요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편의 접근성, 충분한 인력자원 확보 등이 필요함.
- 레벤스힐페 뮌헨의 주거공동체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사회참여에 있어 지역사회 환경은 잘 갖추어져 있는가?
 -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웃 모임이 있고, 장애인들이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하도록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예: 공연관람, 휴가, 소풍, 식당이용 등)
- 레벤스힐페를 설립한 장애인 부모들의 장애인 자녀에 대한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 생애내내 최고 수준의 아이들의 보살핌과 지원, 가능한 한 많은 자기결정력, 자기효능성 및 독립성 유지하길 원함.

나 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모델 및 작업장에 관한 질문

- 독일 연방정부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모델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델은 어떤 것인가?
 - BTHG(연방 장애인 참여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음. 이것은 특별한 주거 형태에서 가능함. (이곳에서 사람들은 다른 장애인과 함께 '주거시설'에서 일주일 내내 돌봄을 받으면서 살고 있음), WGs(공동 주거)를 통한 것도 가능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집이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
 - 장애인을 동반하는 지원사가 있는 아파트에서 홀로 살 수도 있음.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장애인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주거공동체만의 차별화된 특성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각 사람은 개인실과 개인 욕실을 가지고 있으며, WG(공동 주거)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고 있음.
- 주거공동체 및 작업장(레스토랑)에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물론 접근성임. 이에겐 건물 구조뿐만 아니라 점자, 간단한 언어, 메타기호, 인식하기 쉬운 구조(명확한 공간)같은 것들도 포함됨. 또한, 인력자원이 중요함.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음.

-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큰 가치가 두어야 하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측면은 수용과 관용이라고 생각함. 장애인이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때로는 일이 더디게 진행되거나 작은 실수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 이해, 개방성 및 존중이 필요함.

□ **작업장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원과 감독을 받고 있음. 요구사항과 필요에 따라 감독은 보다 강화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음. 만약 작업장에서의 감독이 충분하지 않다면 해당 장애인은 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이곳에서 감독은 보다 강화됨.
-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체 지원사를 둘 수도 있으며, 이는 본래 직원에 추가로 장애인을 전담으로 돌봐주는 별도의 인원을 의미함.

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배리어프리에 대한 질문

□ **발달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 간단한 언어로 의사소통하려 노력하며, 필요한 보조기구(예: 토크어)도 제공함.

□ **뮌헨시청 행정부(공공)의 장애인 이동권관련 배리어프리정책에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https://www.behindertenbeirat-muenchen.de>)**

- 뮌헨에는 장애인자문위원회의 다양한 전문 업무 그룹이 있으며, 장애인의 이해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함. 이러한 전문 업무 그룹에는 장애인도 참여하고 있음.

□ **독일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의 욕구는 어떠한 수렴절차를 거쳐서 공공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

- 현재 독일에서는 많은 법률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률이 제정 중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은 독일에 의무적임. 따라서 2020년부터 법적으로 모든 사람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이 투표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라 장애인 인권 및 시민의식 관련 질문

□ **뮌헨시민의 장애인 인권의식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 이를 일반화하여 말할 수는 없음.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평등한 일원으로 보는 시민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배제, 차별, 심지어 적대적 대우를 경험하고 있음.

□ **인권과 관련한 시민의식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어, 액션 플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포용적인 행사들이 계획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뮌헨 주거 시설의 포용적인 가족 축제와 지역에서의 행사들도 참석하고 있음.

3-1 페니히파라데 장애인작업장

구 분	내 용
기관 정보	<p>○ 재단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니히파라데는 1952년 Schwabing병원과 연계하여 소아마비 어린이들을 지원해주는 재단법인으로 시작하였음. 1950년대에 소아마비 전염병이 돌았고 특히 미국에서 발병률이 높았는데,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돕기 위해 마지막 동전까지 모은다는 의미의 미국의 페니히처럼 독일에서는 그 동전을 모아 낙원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음. • 장애인에게 내 집 같은 편안한 집과 일자리를 마련하자는 의미로 전쟁 후 굶주리던 지적장애 어린이장애인을 위해 시민들의 기부로 시작되었으며 재단 본부가 뮌헨에 위치함. • 뮌헨 시내와 교외에 장애인 기숙사, 작업장, 특수학교 등 50여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p>○ 비전과 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는 포용의 실현. 모든 인간은 사회의 동등한 일원이 되어야 하며, 포용은 선택이 아니라 국제법과 인권임. •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독일연방공화국은 장애인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포용의 이점, 즉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다양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함. <p>○ 주요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와 병원 / 기숙사 / 작업장 <p>○ 주 소 : Stiftung Pfennigparade Barlachstraße 24-36 80804 München</p> <p>○ 홈페이지 : https://www.pfennigparade.de/</p>
방문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벽 없는 사회공간으로 장애인의 포용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적기업으로 작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의 이동권 조사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공동체를 통한 통합환경 연구

<p>관련 사진</p>		
	<p>기관 담당자 인터뷰</p>	<p>페니히파라데 단체사진</p>
		
	<p>문화예술 분야 장애인작업장</p>	<p>장애인 근로자들의 예술 작품전시</p>
		
	<p>IT분야 장애인작업장</p>	<p>휠체어 높낮이에 따라 높이가 조절되는 작업장 책상</p>
		
<p>장애인 근로자가 기관라운딩을 주도하여 설명하는 모습</p>		

3-2 페니히파라데 장애인작업장 인터뷰

가 비전과 미션에 대한 질문

- 페니히파라데 작업장이 추구하는 중요한 방향은 무엇인가?
 - 독일 사회법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Gesetz von Wfbm=Werkstatt für behinderten Menschen(보호작업장 법률) 위한 법이 있음. 이 법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없는 장애인만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페니히파라데 보호작업장은 현재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자폐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들이 있음.
 - 우리의 과제는 그들의 역량을 강화해 그들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 이것은 매년 성립되기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는 많은 협력사가 있음. BMW, Microsoft, 제과점 등이 있고, 이런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게 된다면 페니히파라데 작업장(사회보험 가입의 의무가 없음)과 달리 사회보험의 가입 의무화가 됨.

나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보수와 관련된 질문

- 작업장에서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 보장되는가?
 -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최소 보장이 지원됨. 독일 정부에서 기본 보장 급여 지원, 대다수 거주 지원, 이동 수단을 위한 지원(차비: 항공료 포함) 보호작업장 임금을 받음.
- 개인 역량에 따라서 임금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 업무평가를 통해서 임금 수준을 나눔. 일반노동 시장처럼 평소 태도(부지런함, 성실함 등)와 능력 평가 등 회의를 통해서 차등됨.
- 조금 전 본인의 작품(도기 장식품)을 판매한 근로자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분들에게 돌아가는 성과보수가 있는가?
 - 일대일로 직접 인센티브가 돌아가지는 않지만, 그 팀의 책임자가 그런 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함.
- 근로자 관점에서 자신의 작품이 다른 사람보다 더 판매되었으면 하는 욕구가 있을 것이다. 그들 간의 경쟁은 존재하는가?
 - 당연히 경쟁은 있으나, 그리 크진 않음. 우리는 사회복지사로서 그들이 일반노동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최대 목표이기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심한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다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무기준과 예산에 관한 질문

- 장애인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무엇인가?
 - 페니히파라데에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음. 일반노동 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인은 공적 지원으로 여러 가지를 평가를 받음.
 - 의사의 진단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이곳에 와서 27개월 동안 직업훈련을 받게 되고, '직업훈련'을 마치면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 일반노동 시장에서의 직업훈련과는 다르지만, 이 훈련을 마치면 퇴직할 때까지 여기서 일할 수 있음.

-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지원받나요?
 - 바이에른 주로부터 지원받음. 페니히파라데는 지점이 독일 전체에 있고, 예를 들면 저는 헤센주, 바덴 뷁르템베르크 등 여러 주에 해당하는 일들도 맡기도 함. 독일 내에서는 주마다 다른 법, 제도가 다르기에 복잡함.

라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질문

- 독일에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 UN 장애인권리조약에서 지난주쯤 독일을 심사했는데, 독일의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음. 이 조약에서는 탈시설화를 권고함에도 아직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음.
 - 중요한 것은 일반노동 시장에서 일할 수 없는 심한 장애인들만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심한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 완벽하게 흡수되는 것은 어렵고도 긴 여정임.

- 지역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하도록 어떤 노력을 하는가?
 - 독일 전체는 큰 노력이 있었음. 장애인을 위한 것은 꼭 예외 적용. 심한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정책, 즉 휠체어로 어디든 갈 수 있다든지... 문화생활 등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자리 마련 등 페스티벌, 축구, 경기장 등 어디든 그들은 갈 수 있으며,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똑같은 삶을 누릴 수 있음.

- 심한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
 - BMW, Microsoft, Apple, 큰 회사 등 페니히파라데 재단이 큰 재단법인임으로 늘 장애인들이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뮌헨에 북쪽에 이자 강 옆에 비싼 땅에 페니히파라데 시설이 자리 잡고 있음. 체육관이 있는 땅을 후원받아 만든 시설로 이곳에 통합학교(장애+비장애인)가 있고, 통합유치원도 있음.

- 페니히파라데가 12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 작업장 중에서 이곳에서 하는 중점 사업은 무엇인가?
 - 일할 수 있는 것의 의미만으로 크고 그것이 중요함. 노동자로 사는 삶 자체가 중요함. 개인의 작품 모두가 자기 과제임으로 어떤 사업이 중요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
- 작업장 근로인이 기관에 요구사항이 있을시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는지?
 - 그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 심한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종 치료사가 있음. 그 치료사들이 심한 장애인들을 밀접 지원하면서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있음.

<페니히파라데 담당자>

페니히파라데 작업장에서 일하게 된 지 1년 반 정도 되었음. 나 스스로 장애인을 대할 때 제한을 두지 않고, 사람은 사람으로 봐야한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노력함. 사람을 차별하는 것, 즉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갖지 않는 등의 개인적인 변화가 있었음.

4-1 민헨시청 장애인자문위원회

구 분	내 용
기관 정보	<p>○ 기관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자문위원회는 민헨 장애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973년에 설립된 자원봉사 조직임. • 위원회 위원들은 장애인과 가족, 비장애인(기관의 전문가, 공공기관대표,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조직이며, 민헨에서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보호하는 역할, 정책분석, 전문적인 조언을 제시함. • 구성원은 200명으로 8개의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됨. 민헨의 장애인에 대한 요구를 대변하고 시의회와 시청에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함. • 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해 민헨시의 장애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통해 위원들은 장애인 도시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p>○ 최근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들이 버스와 트램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Münchner Verkehrs-Gesellschaft와 협상하고 있음. • 장애인 운전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임. <p>○ 주요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헨시에 장애인의 참여와 포용에 대해 조언 • 전문실무그룹(FAK)운영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전문지식 제공 • 정치인과 행정가에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따른 장애인의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 <p>○ 주소 : Burgstraße 4 80331 München</p> <p>○ 홈페이지 : www.behindertenbeirat-muenchen.de</p>
방문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기구로 장애인의 장벽 없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과정을 탐구 - 민간기구인 자문위원회가 장애인 도시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 탐구

관련
사진



장애인자문위원회 소개



장애인자문위원회 단체사진



뮌헨시청 라운딩



기관방문 선물 전달식



장애인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장애인자문위원회 워크숍



장애인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획된 옥토버페스트 축제
(휠체어 높이에 맞춘 가판대, 점자메뉴판, 휠체어를 위한 좌석 등 의무설치)

4-2 원천시청 장애인자문위원회 인터뷰

기 주요질문

- 원천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요 방향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가?
 - UN 장애인권협약 시행을 위한 행동 계획의 작성 및 시행
 - 장애인의 이해/관심사/여러 분야나 주제 등 다각도로 인식하고 다루는 것
 - 유엔 장애인권협약 시행을 위한 조정 사무실 설립
 - 장애인 대표 및 장애인 자문위원회 재정 및 지명

- 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장애인들의 더 많은 접근성
(이동 제한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학습장애 또는 감각 제한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
 - 교육, 일자리 및 다른 사회단체에서의 더 많은 참여
 - 공공장소에서의 더 많은 시각적 노출
 - 상담과 지원에 대한 더 쉬운 접근

- 원천시의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있어 지역사회 환경은 잘 갖추어져 있는가?
 - 완전히 접근성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어려움. 장애인들을 어디든 포함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적어도 도시가 지원하는 사립 기관 및 원천시가 재정 지원하는 문화 시설 및 이웃 모임에서는 장애인들의 참여에 대해 점점 더 생각하고 있음.

- 원천시의 장애인복지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욕구가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시정 및 도시 행정은 장애인 고려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지난 몇 년 동안 긍정적인 추세를 알 수 있음. 그러나 포용 또는 UN 장애인권리협약 시행에는 비용이 들어가므로,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독일 지방 정부들은 재정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권리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 독일은 이미 유엔장애인권협약이 15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장애인들에게는 이해가 어려운 일임. 유엔 장애인권협약의 액션플랜3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담아내고 있음. 5가지 중점과제에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음. (임파워먼트, 지식전달, 태도, 만남, 가시성)
 - 정기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알아야 함.
 - 스스로 참여하려는 노력(예:자조모임)을 해야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함.
 - 가시성(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어야 함)이 중요함. 인터넷에도 장애인 사진이 더 많이 노출되어야 함.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어린 아이를 앉고 있는 사진은 대다수 사람이 '장애인'으로만 생각하지만 이들도 여자인데, 아이 엄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함.

나 **배리어프리 관련 복지정책에 관한 질문**

- **원천시 지체장애인의 대중교통의 배리어프리에 관한 환경은 어떠하며, 이동권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 공공 교통을 편의시설을 갖춘 환경으로 개조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임. 도시는 버스 정류장의 수평 조정, 지하철역에 램프 도입, 휠체어 사용자용 화장실 구비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이 과정을 시작했음.
 - 또한, 대중교통의 새로운 방향, 교통 진정화 등에서 정치적으로도 장애인을 고려하지만, 여전히 큰 문제 중 하나는 엘리베이터의 고장 발생 빈도가 너무 높다는 점임. 그리고 원천과 같이 대도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사 현장의 안내 방향도 문제가 남아 있음.

- **원천시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동 편의가 증진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서울은 장애인이동권 및 공공일자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 전문 행사를 통해 요구사항에 주의를 두려고 노력함. 우리는 시각장애인 또는 휠체어 이용자로서 도시를 이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시도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투어를 개최함.

- **원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가요? (이동 편의를 위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비용은 다양한 기관에서 부담함. 예를 들어 바이에른주, 건강 및 영양 보험, 포용국 등이 있음.

- **원천시만의 차별화된 장애인 이동권 관련 배리어프리 정책적 특성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모든 공공 교통수단에 대한 작동 및 신뢰할 만한 접근성임.

- **역사적인 상징물이나 오래된 건물은 배리어프리 리모델링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 어렵지만 수많은 소통으로 노력함. 교회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결혼식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가 수많은 노력 끝에 6년이 걸렸음. 내 친구도 휠체어 장애인이고, 그 교회에서 결혼하고 싶어했지만 불가했었음.
 - 오래된 건축물은 내외부적으로 보호가 되어있어 구조변경 자체가 불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임.

다 복지욕구 관련 질문

-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는 어떠한 수렴절차를 거쳐서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이런 과정에서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 많은 분야에서 독일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뒤처지고 있음. (특히 교육과 일의 분야에서). 저희 장애인자문위원회는 상담을 제공하며 관리 및 정치와 함께 점진적으로 시행하려는 요구사항도 제시하고 있음. 긴 시간이 걸리지만 가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 장애인 욕구 개발에서 당사자 참여기회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우리는 모든 사람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려고 노력함. 도시 또한 여기서 UN 장애인 권리협약 시행을 위한 조정 사무실을 강조하며 모든 장애인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함. 이것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 우리 장애인자문위원회와 장애인자문위원회 대표가 있음.

- 장애인 복지 욕구 및 문제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은 공공장소, 공공 직책, 직장 및 특히 학교에서 더 많이 시각적으로 드러나야 함. 공통적인 활동과 경험만이 편견을 줄이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장애인의 특별한 능력과 그들의 필요성을 알아차리게 함.

라 장애인 인권 및 시민의식 관련 질문

- 뮌헨시 공공과 지역주민의 장애인 인권의식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 의식은 어디서나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사람마다 달라서 아직 많은 인식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 관련된 사람은 인식이 높으나, 관련 없는 일반 사람들은 인식이 낮고, 장애인을 위한 예산 집행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음.
 - 뮌헨 장애인들은 그들을 위한 시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그들을 흔히 보는 건 어려운 일임.
 -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다운증후군을 일상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음.(마켓, 해변가, 술집 등). 그곳에서 그들이 지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뮌헨에서는 흔치 않은 일임.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음.

-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시민의식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우리는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더 많은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야 함.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상상나라

2023년 1기 'Oh!벤처스'

N

결론 및 제언

1. 한국 사회복지 적용방안
2. 연수 후 활용방안
3. 연수 후 기대효과

04

결론 및 제언

1

한국 사회복지 적용방안

가 정책적 방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및 관련 법률 개정 필요**
 - 교통약자법 제3조 이동권에서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동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이 누락 되어있음. 이에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관련 법률을 검토 및 개정하여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구축**
 - 원헌의 장애인자문위원회란 기구처럼 장애인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참여하게 되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자문위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한국도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공공의 시스템이 필요함.
 - 공공교통수단의 접근성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함.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은 적절한 높이로 되어있어야 함.
 - 독일의 도심지역 대부분 버스정류장은 이미 접근성이 확보된 상태이며, 매년 추가로 정류장이 접근성을 갖추도록 개조됨. 보도정비, 턱낮춤, 적절한 유효 폭, 기울기 확보, 평탄함 등 물리적인 환경 개선 필요함.
 - 마르부르크시 홈페이지에 ‘배리어신청’을 사전 예약하면 장애인이 약속장소에 가고자 할 때 장애물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 다른 대체 길을 찾아주며, 때로는 그 길을 동행할 사람을 찾아주기도 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한국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구축이 시급함.

나 실천적 방안

-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시민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
 -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부분은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교통시설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함. 이동 편의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침해받는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등을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체장애인의 이동성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함.
 - 일반 시민에게도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며, 장애인 탑승에 조력을 줄 수 있는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독일 사회처럼 버스 운전사에게 장애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 관련 업무 관계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함.

- 장애인 당사자의 이동권 관련 교육 조력
 - 원헌의 장애인자문위원회에서 장애인도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며, 스스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위원회 대표의 얘기처럼 장애인당사자 자신도 본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전문가의 다양한 교육적인 조력이 필요함.

가 단기 계획

- 장애인 이동권 관련 배리어프리 실천사례 탐색 및 발굴
 - 서울시 장애인이동권 관련 배리어프리 실천사례 탐색 및 발굴
 - 경기도 장애인이동권 관련 배리어프리 실천사례 탐색 및 발굴
 - 남양주시 장애인이동권 관련 배리어프리 정책 탐구

- 지역 내 연수보고서 공유발표회
 - 포럼, 세미나, 보고회 등을 통한 연수결과 발표 및 연수성과 공유

- 기관별 종사자 교육 시행
 - 연수 단위 소속기관별 내부 직원교육 시행

- 기초연구 자료 활용
 - 장애인 이동권 관련 배리어프리를 위한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

나 중장기 계획

- 장애인 이동권 관련 배리어프리 정책토론회
 - 남양주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이동권 관련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일반 시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지역 내 장애인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장애인 인권, 인식, 이동수단 등 장애인 이해에 대한 교육 실시

- 배리어프리 관련 정책제안
 - 남양주시 운영지침 마련 등 규정 및 지침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연구모임 조직 및 활동
 -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배리어프리 연구모임 구성 및 정기모임 개최

- 독일의 배리어프리 선진 사례 학습 및 모델링을 통하여 국내 장애인 이동권 정책 방향 및 남양주형 실천 모델 제안
- 독일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사회참여 가치 및 철학에 대하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전파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수준 제고를 위한 방향성 제시
- 선진 복지국가의 제도 탐구 및 현지 사회복지시설 실무 노하우 습득을 통한 실무자 역량 강화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상상나라

2023년 1기 'Oh!벤처스'

V

연수소감

1.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시설장 이정연
2.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국장 김미현
3. 늘사랑실버케어센터 시설장 장명숙
4. 남양주시니어클럽 실장 장규원
5. 남양주시복지재단 대리 김은혜

05

연수소감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시설장 이정연

#. 독일의 문으로 열린 세계, 새로운 도전의 시작.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다.

한국에서 사회복지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어려운 일도 있었고 이 길이 맞는지 고민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자세로 묵묵히 전진했다. 새로운 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나에게 실패도 있었지만, 과거의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나에게 한국보다 더 익숙한 나라지만 또 다른 풍부한 경험을 기대하며 이 연수에 참여하였다. 독일 지체장애인의 배리어프리 정책 선진사례를 배우면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 찼었다. 그러나 캡스톤 과정에서의 협업과 의사소통이 더욱더 큰 도전적인 과제가 되었고 그렇게 독일 연수를 떠나게 되었다.

#. 인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답이다.

신호등에서 소리가 울린다.

길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버스정류장에서 버튼을 누르면 운행상황이 음성으로 안내방송 된다.

필립스대학 도서관에 갔다.

낮선 곳을 라운딩하는 우리에게 장애인 학생 한 명이 도움을 주고자 다가왔다.

거리뿐 아니라 대중교통시스템에서 문화 시설까지, 모든 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불편함 없이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된 환경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타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매우 인상적이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마지막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스스로 챙겨서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있기에 살아간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기심으로 살아간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들은 사랑으로만 살아간다.'라는 내용이 있다. 타자와의 행복 실현을 통해 우리가 모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자아실현인 것 같다.

독일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은 사회에 참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장애가 있는 개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립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새로운 비전, 한국 사회에 선진사례 적용하기

배리어프리를 한국에 적용하고자 한다.

가장 넘기 힘든 장애물은 우리 머릿속에 있다.

장벽 없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교육은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에 필수 조건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실현에 있어 가장 방해되는 장애물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바로 비장애인 시민들의 인식이다. 그 누구보다 빠른 기술혁신과 성장을 이뤄낸 한국은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큰 장벽이다. 이 연수를 통해 타인의 불편함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일은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타인의 불편함을 헤아리고 배려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더 많은 장애인을 도울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점점 중요해지는 있는 요즘 이를 위해서는 이해와 공감, 관심과 존중, 예의와 친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새로운 시각과 희망을 품고 그동안의 경험을 동원하여 남양주시가 포용적인 장애인 친화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이바지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긴 대장정이 끝난 느낌이다. 선진사례 연수 벤치마킹을 통해 배리어프리 시스템 및 노하우 등을 배울 기회와 긴 여정 가운데 소통과 화합 그리고 리더십을 나 자신 스스로 점검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남양주시복지재단에 감사드린다.

또한 캡스톤 과정부터 연수까지 가장 수고했던 총무 로켓과 오벤저스 팀원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김미현**

#.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하기 위한 내 삶의 미션을 찾아서

어릴 때 기억하는 장애인과 처음 만남은 동네에서 만난 “굴뚝 청소하는 아저씨”였던 것 같다. 징을 치며, 어깨에 청소 장비를 메고, 의수를 낀 아저씨가 나타나면 동네 아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 마을에 징소리가 울리면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난다. 외할머니 말씀으로는 한쪽 팔을 잃은 장애가 있는 아저씨를 성질이 사나운 사람으로 설명 해주셨다.

또 다른 기억은 사회복지를 시작한 후에 지역에서 의족을 착용한 “두루마리 화장지”를 팔러 다니는 장애인분이 있으셨다. 지금 생각하면 나름대로 직업을 가진 직업인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인식은 동냥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화장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천 원짜리 한 장 주면서 영업방해 하지 말고, 얼른 나가라는 손짓으로 대하는 광경을 보았다.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왜 국가에서 책임져주지 않을까?”,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는 무엇인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다. 늘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들로 인식했고, 복지사가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시간이었다. 장애인복지를 시작한 지 20년이 흘렀다. 내가 사는 지역 사회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하기 위한 내 삶의 미션을 정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

신문기사로 접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와 남양주시 복지재단에서 해외연수과정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함께 접하며 선진국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법에 따라 행해지는 동등한 권리.

조별주제가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배리어프리 정책연구로 정해지면서 엄청난 부담감이 생겼다. 여러 일정과 주제에 관한 탐구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만난 수차례의 미팅을 통해서 여러 조율이 이루어졌고, 캡스톤과정의 강사님의 예견처럼 엄청나게 긴장도가 높아지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출발 전의 긴장도와 장시간 비행시간의 피로감은 뒤로하고, 다음날 쾰른대성당의 웅장함에 압도되어 감동받았던 행복한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다.

다음날 기관방문을 앞두고 설렘과 기대, 긴장감에 예상질문을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마르부르크 사회복지청 담당자를 만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얘기는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법에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배리어프리를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정책에 정부와 지자체의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책을 실현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준은 명확하다. “UN의 장애인 권리협약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말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법 제정은 되었으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되거나 다시 정치적인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와는 다른 것 같다.

독일사람들의 시선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중요하고,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많이 이루어질 때 인식이 높아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마르부르크 거리에서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마주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장애인이 사회참여를 위해선 이동권에 관한 배리어프리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일상에서 문화가 있는 삶과 비장애인의 일상처럼 보통의 삶을 즐기며 자기 결정에 따라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일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 새로운 시작 - 지역사회에서 모두가 동등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뮌헨 마리엔광장 앞 백화점에서 수동휠체어를 탄 채로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는 장애인의 뒷모습을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다. 이런 삶이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일상을 동등하게 경험하는 보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마르부르크 필립스대학 도서관에서 만난 시각장애인이 낯선 방문객(연수팀)을 보고 통역사에게 “도움이 필요하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겠다”라는 제의가 낯설게 느껴졌다. 장애인 당사자도 스스로 권리를 찾고, 스스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일상 생활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야 한다는 뮌헨의 장애인자문위원회 대표이사의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이 왜 중요하며, 지역사회중심 서비스 및 지역연대를 강화해야 하는 중요성을 알게 되는 의미 있는 연수였다고 생각한다.

연수과정 속에서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중간에서 조정을 해주는 구성원들이 아니었다면 성공적인 연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캡스톤과정으로 시작되는 연수에 부담감은 있었지만, 이제 연수는 어디라도 계획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남양주복지재단에서 마련해주신 해외연수과정이 아니었다면 이런 소중한 경험을 못 했을 것 같다. 이 기회를 통해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내 삶의 미션은 정해졌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모두가 동등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늘사랑실버케어센터 시설장 장명숙

#. OH!벤저스 성장과 추억

아름다운 프랑크푸르트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마인강을 따라 호텔로 향하는 길을 시작으로 설렘과 긴장감, 기대를 품고서 함께 나누던 밤은 깊어갔다.

이른 새벽 고요한 발코니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상쾌한 가을 공기를 마시며 기분 좋게 독일에서의 첫 날을 맞이했다. 짧은 순간 빌딩 사이사이 어둠이 점차 붉은 빛으로 차오르며 환하게 밝아진 하늘은 마치 OH!벤저스의 성장 과정이 아닌가 싶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각기 다른 분야 사회복지사 5명이 한팀이 되었고, 보이지 않는 어색함을 이겨내며 세션별 정해진 역할에 따라 모자를 쓰고 우리만의 무대에서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션마다 연수계획에 대한 리플렉션 메모와 피터의 피드백은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었다. 독일을 연수 국가로 선택하고, 분야별 강점을 고려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기관 섭외, 기관조사, 통역 섭외, 여러 가지 예약 등을 결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C zone, P zone을 넘나들었지만, 다행히 꿋꿋이 꿇고 있는 압력 속에서도 우리는 팀워크를 발휘해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 인권과 평등을 위한 통합교육의 시작

마르부르크의 시청을 향해 서둘러 이동해 여유롭게 약속된 시간 안에 도착했다. 그런데, 데스크에서 담당자가 결근이라는 소식을 듣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감돌았고 차선책을 논의해야 할 그때 누군가 히어로 처럼 우리에게 나타났다. 다행히도 대신 안내를 맡게 된 분들이었다. 긴장감은 잠시 어느새 인터뷰에 집중하게 되었다. 마르부르크는 교육도시로서, 배리어프리 환경조성과 인식에 대한 역사와 현 정부의 정책을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장애와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서로 이해를 돕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므로 시민들은 평등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공동체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었다.

#. 백문 불어일건

도서관 첫 경험은 입구에서부터 아늑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분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그 분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먼저 말을 걸었다. 방문 목적을 듣고,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 복사기, 서비스 등을 자세히 설명 해주셨다. 마르부르크의 모든 공공기관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도 알게 되었다. 이어서 식당으로 이동하면서도 바리케이드 없는 평탄한 바닥, 넓은 통로, 자동문, 편안한 의자 등 모든 요소가 사람들의 이동과 이용을 쉽게 만들어 주었다. 이곳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느꼈다. 또한, 도시에 건물 구조, 공공 교통, 정보 표시, 가구 및 가전제품, 웹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의와 접근성을 제공 받으며 장애를 극복하고 재능을 발휘하며 자랑스럽게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의 소감도 직접 들 수 있었다. 이러한 현지 경험은 더욱 인간 중심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추구해 포용성과 공정성 증진을 위한 정책의 중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 일거양득

독일은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참 많았고 이왕이면 하는 마음에 방문기관 주변의 노인시설을 조사해 방문요청 메일도 보냈었다. 아쉽게도 환영의 회신은 없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정책 및 정보를 좀 더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노인복지도 장애인복지와 같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노인의 문제에 집중하고,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노인 문제만 들어가더라도 무궁무진하게 발달해 있음을 전해 들 수 있어서 조금은 궁금증이 해소되기도 했다.

#. 인연

독일에서 마지막 날 정오 마리엔 광장 벤치에서 캐논 엔지니어인 70대 어르신을 만났다. 시니어 근로자로 주 20시간 미만 유연 근무로 여유로운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었다. 서로의 짧은 인사가 인연이 되어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의 직업을 들으시고는 요양원에서 케어를 받아야 할 때가 본인도 곧 온다며 유쾌한 웃음을 보이셨다. 살짝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적은 엽서를 건네주신 따뜻한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니어 생활을 보내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독일행 티켓을 들고 떠날 그 날을 상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 속에 크고 작은 위기 상황에서도 팀원들과의 협력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며, OH!벤저스가 함께한 다양한 경험과 배움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 확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남양주 복지재단 상상나래 해외연수 기획은 기회가 되어 새로운 영감과 가능성을 품고 「상상 더이상」 행복한 복지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라며 함께한 모두가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남양주시니어클럽
실장 장규원

#. 설레는 감정, 새로운 길을 걷는 기분.

한국을 벗어나 외국의 선진사례를 위해 떠난 사회복지 연수는 남다르고 기대가 가득한 출발점이었다. 다른 분야의 장애인 배리어프리 정책에 관해 배우고 습득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긴장되고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했었던 같다.

연수를 떠나기 전, “오벤져스”팀원 간의 여러 차례 논의하고 캡스톤 방식의 합의점을 찾고 이해하는 과정이 생소하고 힘든 부분으로 생각했지만 5명 팀원 모두 의견 및 결과를 도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노인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틀과 다른 기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임하였던 같고 자기소개 시간에서도 새로운 나의 모습을 찾는 초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다.

여러 가지로 새로운 감정과 새롭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 연수를 떠난다는 것이 좋았고 연수 가기전에 엇갈리는 의견 고충 등 다소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실마리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졌다.

#. 오벤져스팀과 함께 동행하고 경험하는 여정.

오벤져스라는 팀명으로 그리고 남양주시 사회복지종사자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임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장애인에 보다 친화적이고 앞장서는 독일장애인 단체 및 공공 기관에 방문하여 다양한 배리어프리 정책 및 선진 사례 등 배우고자 하였다.

실제로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모습, 장애인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 정신 및 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관 및 단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떤 것이 해답이 있는지 알아보려 한 것 같다.

또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대입하고 특히 남양주시가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보편적인 서비스 등을 바라보며 독일 선진 기관과 비교하며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연수 일정을 하루 이틀 소화할 때 마다 궁금한 점이나 팀이 목표로 했던 해결점이 있는지 서로 확인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하였다.

중간에 연수를 기획하고도 현지에서의 애로점과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매 순간마다 순발력이 필요한 순간도 많았다. 이럴때면 서로가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던 기억이 새록 기억에 남는다.

#. 새로운 경험, 나를 돌아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기쁘다.

이번 연수는 독일에서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겪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연수 선진 기관을 방문할 때 마다 여러 질문지를 가지고 현지 사회복지사와 소통하는 시간이 매우 소중한 의미 그 이상의 시간이었다.

연수 시간을 돌아보며, 현재 우리 사회가 비장애인과 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 환경에 놓여있는지, 실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 연수를 통해 크게 사회복지를 바라보고 장애인에 대한 정책 및 관심이 많이 생긴 것은 깊은 고민으로 남는다.

이를 해결하고자 또는 고민해 보고자 했던 연수이기에 더욱 기억에 남고 함께 했던 팀원이 더욱 그리워지는 것 같다. 연수 중간에도 서로 티격태격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짧지만 길었던 추억이 가득한 여정이었으며, 서로 최선을 다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연수를 마치며, 새로운 기회를 준 남양주시복지재단에 감사하며, 함께 해준 오벤저스팀에게 고맙다. 함께 고생하고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값진 연수였던 것 같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리 김은혜

#.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벌써 해외연수를 갔다온지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미루어 두었던 해외연수 소감을 쓰기 위해 연수 떠나기 전을 떠올려보니 여러 가지 감정이 밀려왔다. 처음 해외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관심있는 복지 분야는 어떤 것인지’부터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우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등 연수에 대한 나의 포부와 개인적인 생각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사회복지사 해외연수는 조금 특별했다. 단순 제시형 연수 프로그램이 아닌 캡스톤 프로젝트라는 과정을 진행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팀원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연수를 기획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사회복지사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나왔고, 그에 따라 의견충돌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연수주제와 나라, 방문기관, 연수일정 등 연수계획을 차근차근 만들어갔다.

연수 직전 몇 가지 이슈들로 인해 기관방문 일정을 재조정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팀원들은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며 연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메시지를 통해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려, 포용, 이해...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속담처럼 연수에 진심이었던 팀원들 간 의견수렴 과정은 우리들의 팀워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연수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 베를린 장벽을 넘어 일상의 장벽도 무너뜨렸다.

여러 논의 끝에 우리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정책과 선진사례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독일을 방문하기로 했고, 나는 평소에 독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컸다.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보다 먼저 통일의 길을 걸으면서도 유럽 최고의 경제 대국, 또 사회복지 선도국가로 성장한 독일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았고 배울 점도 많을 것 같다 늘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마르부르크 시에서 첫 기관방문 하던 날부터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았다. 아직까지 남양주시에는 보기 드문 저상버스가 시골 마을인 마르부르크 곳곳에 운행 중이었으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버스와 트램, 심지어 도보까지 혼자서 활보하는 모습이 조금 어색했다. 도움이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주시했지만 이러한 시선은 이방인이었던 나에게만 있었을 뿐, 독일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특별한 장면은 아니었는지 각자 제 갈 길을 걸을 뿐이었다. 그렇게 독일의 첫인상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달랐고, 기관 한곳 한곳 방문할 때 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시선과 인식이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다.

기관방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뮌헨에 위치한 ‘페니히파라데 장애인작업장’이다. 이 작업장의 굉장한 규모와 직업 분야별 다양한 시설들은 나의 마음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또 이곳의 장애인들은 선호하는 직업 분야를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자 중심의 직업 재활 서비스’를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인지 자기 만족감에서 나오는 행복한 표정과 무엇이든 스스로 하려는 의지, 또 그걸 편견 없이 바라봐 주고 응원해주는 기관직원들의 신뢰 속에서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껴져 그곳의 방문이 더욱 기억에 남았다.

마지막 방문 기관이었던 뮌헨시 장애인자문위원회, 이곳을 방문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근 이슈되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떠올랐다. 독일의 장애인자문위원회는 시에서 권한과 임무를 부여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변해주고, 정부와 장애인들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하루빨리 개선되어 모두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각자의 의견들이 수용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았다.

#. 마침내, 다름을 받아들이다.

더 나은 세상, 포괄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세상을 위해서는 ‘다양성’이 필요하다. 비장애인, 장애인 영역을 나누어 생각하지 말고 타인의 다름을 받아들이며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통합 환경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통합할 수 있게 소수자에 대한 장벽을 낮춰주고 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비단 소수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배리어프리는 배제 없는 포괄적 사회를 만드는 과정으로 모든 인간은 아이나 노인의 시기에 취약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언젠가 장애를 갑자기 얻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배리어프리는 소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더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며, 본질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는다.

짧은 연수기간 동안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지에서 보고 듣고 체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이번 연수를 통해 느낀 것은 국가의 지원 정책 보다 더욱 중요한 건 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국가의 지원시스템은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민 의식의 개선점과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배리어프리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민하며, 일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재단 직원분들과 연수 과정 동안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오벤저스 팀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참고문헌

1. 문헌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9). 장애인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박창석(2021),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법학논총.
 이상호(2002),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독일 복지제도의 딜레마, 사회경제평론.
 정수정(2017), 독일의 특수학교 운영과 지역공동체의 역할, 해외교육동향.
 홍서윤(2016), 자체장애인의 이동성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2. 통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등록장애인 전체 인구 대비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3506>

3. 인터넷 기사

EBS뉴스, '장애학생 '통합교육' 12년째인 독일... "자연스럽게 다름을 경험'(2021.06.02.)
<https://v.daum.net/v/20210602173055089>
 연합뉴스, '[유아특수교육] ②함께 사는 법 배운다지만...통합교육 갈 길 멀다'(2022.11.12.)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1041900501>
 프레시안, '한국의 1년 장애인 예산, 독일 1개 도시에도 못 미친다'(2023.04.0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0415222425011>
 NEWSTOF, '장애인 이동권 20년 시위' 왜, 어떻게 진행됐나'(2022.03.31.)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1>
 SBS NEWS,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년... 요구하는 건 뭐고, 쟁점은?'(2022.03.2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92421
 프레시안, '베리어프리' 장애인 차별 없는 복지국가 독일의 오늘'(2019.05.02.)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39273>
 복지타임즈, '독일의 무장애 이동성 정책'(2022.05.11.)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81>
 뉴시스, '①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은 '등록 장애인'(2022.05.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169128?sid=102>

Thanks To.

1. 마르부르크시 사회복지청.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 일동
2. 레벤스hilfe 뮌헨(lebenshilfe münchen) 장애인시설. 관계자 일동
3. 페니히파라데 장애인작업장. 담당자 일동
4. 뮌헨시청 장애인자문위원회.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 일동.